

금주일이 지극히 정성되고 편하고
고요하여 입에는 거칠거나 추한 말 없고 남에 대하여 성내지 않으면 그것을 일러 범행이라 한다.
(법구경·자인품 4절)

東大新聞

발행처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주소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260-3492)
전화	FAX(02)279-1270
팩스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770-2057)

제 1191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6년(불기2540년) 1월 1일 (월요일)

동국 90년의 표상



개교90년

참사람 만드는
열린 교육
미래를 만드는
동국사랑

-개교 90주년 기념 표어 및 엠블렘 응모작 최중심사 결과-

당선
참사람 만드는 열린 교육, 미래를 만드는 동국 사랑
정희성(동문 시인, 국어국문학과 83년도 졸업)

가작
백년 동국! 겨레를, 민족 동국! 세계를
김규열(경제학과 1학년)
민족열 이은 동국 백년, 세계로 향한 동학 지성
김민석(전기공학과 1학년)

입선
민족과 함께한 90년, 세계와 함께할 200년(신승일, 무역학과 3학년)
민족 속에 동양의 열, 세계 속에 동국의 혼(박병석, 교육학과 3학년)
백년 겨레의 맑은 지성, 21세기 세계의 밝은 도량(서종민, 생명자원경제학과 3학년)
세계를 여는 동국대, 미래에 도전하는 동국대(이승열, 광고학과 1학년)
열린 동국, 그 변치않는 정정함(이규찬, 토목공학과 1학년)
질투든 소나무 기상 웅대한 동국, 숲속 구순 그 소리(송덕금, 불교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오라! 여기로 보라! 우리를, 가자! 다함께(신현주, 신문방송과 1학년)
걸어 온 90년, 영원한 걸음을 열린 동국에서(김근수, 산림자원학과 2학년)
(엠블렘 입선) 미술학과 3학년 김영산, 미술학과 3학년 권민우
*입상자는 1월4일 10:30까지 본관 4층 복주년사업본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논단-미래의 대학 열린대학

21세기를 예감하는 지혜로

구성원 자발적 참여만이 열린 교육 실현



이병철
(경상대 경영학과 교수)

2천년전 그리이스의 한 철학자는 "같은 강물에 발을 두번 담을 수는 없다"라고 변화의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같은 장소에 가서 우리는 발을 두번 담을 수는 있으나 이미 같은 강물은 아니다. 강물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요즘을 특히 변화를 강조하는 것은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강물도 천천히 흐르는 강이 있는 반면에 물살이 빠른 강물이 있다. 최근의 변화는 엄청난 급류로서 너무나 많은 변화가 한꺼번에 물러옴으로써 강물에 발을 잘못 담그다가는 아예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화는 대학교육에도 새로운 능력과 자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중세의 대학이 신학, 법학, 의학으로 출발한 이후 대학의 교육내용과 방법은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여 왔다. 지금의 대학을 살펴볼 때 수많은 학문분야의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바뀌어 온 것이 주된 이유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우리의 대학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인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언제나 수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이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대학교육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대학교육의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은 많은 학자들의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전문성과 지적개발 능력이 중요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으로서 창의성, 리더십이나 의사소통 능력과 같이 수평적 조직내에서 남과 함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기술의 발달과 세계 정치경제적 상황의 재편에 따른 세계화 능력, 정보기술의 이해와 활용능력이 대학교육을 통하여 개발되고 교육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되고 있다.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대학교육은 국가나 조직경쟁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열린대학교육이란 위에서 언급된 새로운 능력들을 효율적으로 키워 나가기위한 대학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사회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대학 울타리 내에서는 학문간의 고정된 장벽이 허물어지며, 과거의 전통적 방식을 과감히 털어 낼 수 있는 대학교육을 우리는 열린 대학교육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외부 환경 변화에 상응하는 열린 대학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당국, 교수, 학생이 모두 적극적으로 변화 과정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전체적이며 통합적인 변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제간 연구와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새로운 학문분야와 연구방법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교육제도, 새로이 필요로 하는 능력은 연구하며 교육할 수 있는 교수, 과거의 소극적 교육 참여자로서의 학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존재할 때, 과거의 폐쇄적 교육에서 벗어난 열린 대학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요구에 걸맞는 열린 대학교육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혁신적인 대학교육 제도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교과과정, 전공제도, 강의방법과 시설들이 정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존의 학문 분야만으로는 연구하고 교육하기 어려운 새로운 분야들이 기술의 진보와 함께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로보틱스는 기존의 기계공학, 제어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의 통합적 적용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여겨지는 멀티미디어 분야는 영화, 사진, 미술뿐만 아니라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사회학, 심리학, 경영학등에서 연구되던 주제들의 종합적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수전공제도나 학제간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교육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질적인 충실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적인 교육설비와 보다 효율적인 교수방법등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대학교육의 개혁은 대학당국이 일방적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보다 모든 대학구성원들의 참여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열린 대학교육이 의도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비정형적이고 유연한 교육제도에 있어서 안주하지 않는 학생들의 자세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대학교육 개혁은 필연적으로 학생들과 선택폭을 넓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이하게 단지 학위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학교육을 통하여 자기개발능력을 얻고자 하는 학생들의 투철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열린 대학교육은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들 것이다. 결론적으로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가 요구하는 새로운 능력의 육성과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는 열린 대학교육은 대학구성원의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와 지속적 노력으로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의 길

2 개교 90주년 기념사업을 진단한다.



본교는 올해로 개교 90주년을 맞아 각종 공연 및 전시회, 세미나 등의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전 동국인의 동참속에 지속적이고 뜻깊은 행사가 되길 바라며 개교 90주년 기념사업을 살펴본다.

5 90주년 기념특별좌담

동국 90주년을 맞아 학교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좌담을 마련했다. 학교발전 계획 수립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21세기 기획단과 개교 1백주년사업본부의 계획을 통해 21세기 동국의 미래를 전망한다.

6 기자방담

본사 전기자의 방담을 통해 학내의 전반에 걸친 주요사건을 조망해 본다. 냉철한 평가와 열띤 논의 속에 1995년을 정리했다.

7-8 동대문학상 특집

역사적 상상력과 현실의식을 겸비한 시부문 본상 수상작 '대조를 생각함'과 오랫동안 다듬은 성실함의 결과라 평가받은 '별'을 음미해 본다. 평론부문 수상작에서는 80년대를 지나며 반민중적 은둔주의로 비판받았던 김지하의 문학정신을 변함없는 것이로 옹호하는 '칼에서 생명의 연꽃으로'를 통해 김지하 단시의 변모를 살펴본다.

9-12 동대학상 특집



자연과학부문에서는 학술적인 면은 물론 실용성이 돋보일 '나팔꽃과 고구마의 접촉재배'에 대한 연구와 그 응용성의 개발을 살펴본다.

16 만화로 본 95년

95년은 참으로 많은 일이 일어났다. 두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는가 하면 검찰의 공소시효만료 발표이후 5·18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학내에서는 학부제 실시로 인한 뜨거운 논란과 마찰을 빚었다. 만화로 95년을 돌아본다.

'이 땅에 새 역사를 창조하라'

민족신앙의 높은 이상이 90성상을 내달아 오늘 동국의 우뚝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결코 무사와 안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리하여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자 한 투철한 정신으로 용맹정진해온 결과, 이제 동국은 백년 1백년을 내다보는 큰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쉬임없는 장인정신으로 매무새를 다듬고 숨결을 고르며 새롭게 민족사익 한 가닥으로 동국역사를 창조해 나갑시다.

병자년 새해

전 동국인은 오로지 동국 90주년을 자축하며 동국 1백년을 일구어나가는데 힘을 모읍시다.

우리 동대신문사도 그 힘찬 행진의 길라잡이가 되어 독자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소서.

동대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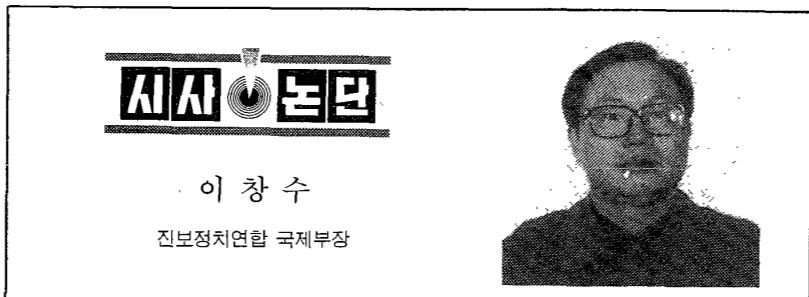
95 정계분석과 앞으로의 방향

과거청산구도 구축...일회적 개혁 경계해야

비자금 폭로로 시작된 요즘 정국은 내년 4월 총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근본적인 정계 개혁 문제를 야기하는 듯하다. 이것은 주로 개혁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집권 신한국당의 민주적 개혁을 말한다. 그러나 이번 개혁은 의도된 것이라기 보다는 우연적 상황논리에 의한 집권세력의 자기 생존 대응적인 면이 크다.

비자금 폭로와 노세 구속에 이어 전세 구속, 5·18특별법 제정의 순서로 나아가고 있는 현 상황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정도로 무방할 정도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곧 혁명적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많다. 여러가지 차원에서 김영삼 정권은 실정을 해왔다.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는 즉흥적이고도 비정형적인 방향을 노정시켰다. 이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전히 남한내의 보수세력을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삼으려는 기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세 비자금 사태로 불거진 정치권의 자각, 반동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김영삼 정권은 진보단체를 비롯한 야당에서 주장해 온 5·18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과거 청산을 통한 새로운 한국을 창조하는 정치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자유당이라는 과거 정권과 연결된 정치세력으로부터 독자적인 자신의 정치세력의 결집을 위해 당명을 개정하고, 노세 부정축재 자금수사와 관련해



이창수 진보정치연합 국제부장

재벌에 대한 통제를 전권화시킴으로써 지배질서 개편과정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였다. 이번 비자금 수사를 통해서 김영삼 정권은 재벌들을 감압적으로 포섭하게 되었다. 이것은 내년 총선에서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서 같은 보수색인 야당으로 지원되는 세계 자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게 되었다.

우리는 내년 총선 정국을 진보대 보수의 대립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실패를 방조한 느낌마저 든다. 그러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5대 총선의 주된 전선을 3김대 반3김 세력 간의 대립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자민련은 더 이상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3김 당사자가 3김 구도의 타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3김의 구도와 지역할거주의의 실제적인 타도 대상은 김대중 밖에 남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다음 총선은 3김 간의 세력 재편 구도 속에서 치루어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김대중은 소위 민주연합본을 제기했다. 이것은 과거 청산 문제를 핵심적 이데올로기로 해서 포유류 자신의 위치를 통과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김영삼과의 양김 합의에 의한 정국적 파를 의도하고 있다. 즉 김영삼 정권의 안정적인 임기 보장과 퇴임 후 일체의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가 소위 대선 자금을 끌고 가서 김영삼 정권에 타격을 입히려고 한 전략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오히려 여러 일각에서는 개혁연합본이 제기되면서, 완전한 관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이와 같은 집권당의 전략이 가각을 확실하게 잡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총선 이후에 그 구체적인 세력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을 객관적인 조건으로 받아들인다면, 김대중 측은 진부한 과거의 전술

을 답습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에 기반한 총선 전략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과거 청산 문제와 관련된 김영삼정권의 비일관된 논리는 이른바 지속적인 혁명적 개혁을 통해서 정점에서 정점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따라서 과거 권위주의 통치와의 단절을 의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김 정권은 자기 주도성이 관철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나 벗겨서 있었고, 이번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국면도 그에 대한 예이다.

이렇게 볼 때, 최근에 있는 김 정권의 개혁적인 비전이라는 것은 일회성 총선 통과에 불과하다. 이런 것을 보충해 주는 것은 최근에 있었던 개각이다. 이번엔 일각의 인사들은 학자와 언론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실제 행정적, 정치적 과거 청산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다는 참신성을 부각하기 위한 인사 조지였다. 이것은 당연히 총선을 개각이다. 통일관련부처 장관의 유임으로 이것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과거 청산이나 역사바로세우기는 하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이 행했던 비합리적인 제도에 대한 과거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김영삼은 결국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에 대한 개혁을 하지 못했다. 이것이 김 정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기 한계이다.

사설

새동국 건설의 주제로 서자

오늘날 대학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 독점과 인연의 울타리 속에서 상아탑의 고결성을 마냥 누리던 타성에서 한시바빠 벗어나야 한다. 폐쇄적이고 일방적 공급의 교육이 대학의 내용일 수는 없다. 그리하여 각 대학은 서둘러 개혁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변화의 열차를 타려하고 있다. 이 출발을 놓치는 대학은 영영 뒤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성을 대학구성원들은 절감해야 하며, 그 변혁의 주제로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자, 우리 동국인들은 각자 지금 어느 지점에서 있는지를 살펴보자. 1996년으로 우리 대학은 개교 9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민중간의 열열이 불교이념을 지표로 하여 세운 이 대학의 전통과 그에 따른 자긍심을 각오를 하고 있는가, 소승적 이기심과 배타적 오만과 편협한 독선으로 대학발전 위한 대역전의 개혁열차를 지연시키고 있지 않은지 자성해볼 일이다.

개방과 경쟁의 시대에 교육개혁은 다양화와 개성화를 기본으로 한다. 천편일률적인 교과과정을 개선하고 교육소비자위주의 폭넓은 교양과 질 높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것은 우리 대학만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심화시킨 융육이어야 한다.

이미 도입한 학부제 실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과정을 쇄신하고, 한편으로 교수 역량을 고양시키며, 행정조직의 생산성 제고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학교발전기금 확보, 제3캠퍼스 건립, 불교종합병원 건립 등이 보다더 적극적으로 실행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변혁에 부응하지 못하고 의욕을 애타게 부정적 관념만 주장하는가 하면, 소극적인 대체 추종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릇을 비우지 않고서는 새 음식을 담을 수 없다. 기록이나 이기주의의 달콤한 맛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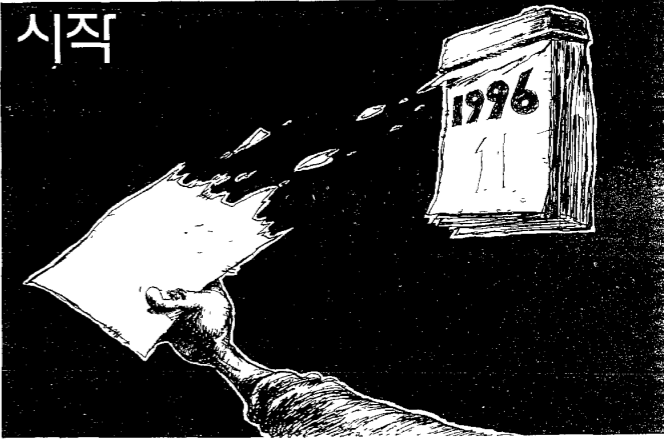
학교당국도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정책과 방안을 시행함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개방적 논의구조를 펴야 할 것이다. 재정과 당근이 함께 구사되고, 바람보다 태양이 외부를 벗겨낸다는 지혜를 베풀때 변혁의 열차는 앞으로 내달리게 된다. 당위성의 역할보다는 의무성을 풀어주는 편안함과 더불어 신속·정확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는 목표를 고민해주시기 바란다.

대학교구성원들도 좀더 혁신탄탄하게 당국에 다가가는 신뢰를 보여주시어 한다. 방관하는 소극성을 떨치고 새동국을 건설하는 주제로 당당히 서겠다는 각오를 다져주시기 바란다.

학교당국의 의욕적인 개혁마인드가 아래에는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며, 새로 구성된 재단도 동국발전전에 대한 기여의지가 충실함을 믿으며 동국90년을 맞는 이 시점이 도약의 디딤돌임을 명심하고 자각과 반성을 깊이 해보자.

동국만평

강성수



시적

1996... 우리는 타협이 되면 이제 '하양-2' 지구는 사라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 같은 재개발 정책으로는 제2, 제3의 철거 지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요. 한참의 침묵 뒤에 신음처럼 들리는 그의 말 뒤로 언제쯤 이일이 해결될까 생각하며 본다.

"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 추운 날 헌법을 할때들이 새벽에 찬바람 맞으면서 작대기 들고 지키는 것을 도대체 알기나 하십니까..."

◆ 르브-철거지구를 다녀와서

"철거민 되고 싶어 된 사람이 어디 있어" 정부주도하의 세입자 대책마련 시급

"한번은 조사하는데 끌려가서 당신 이름이 뭐냐 물었래, 나 이름 철거민이요! 해 버렸소. 도대체 철거민이 되고 싶어 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당당하지만 씩씩한 표정으로 담배를 꺼내 푸는 철거 주민 오익주씨(55세)뒤로 높이 10여미터의 의료용 골리앗이 보인다.

하양2-1지구, 흔히 말하는 재개발 지역이다. 93년 3월 재개발 사업 인가가 난 이후 3천 여명의 주민들은 이주를 하고, 현재는 12가구가 남아 영업손실보장, 재개발이후의 재입주 보장, 가용시설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이 세워 놓은 골리앗 폭대기에 올라서 보면 사방이 공사판이다. 간간히 보이는 대역진 집을 제외하면 아파트 지을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말하듯 이미 철거가 다 끝났다고, 흙을 퍼 나르는 트랙터만 멈추지 않고 움직인다.

하얗게 머리가 섰 철거주민 민성오씨(49세)는 "집 새로 짓고 깨끗한 동네 만들겠다는 건 좋다고. 근데 언제 살던 사람이 어떡하냐 말아야. 우리 같은 상공업자들은 밥줄이 다 끊긴 판인데..."하며 한마디 더 덧붙인다. "계속 협상을 하고 있지. 근데 26개월이 걸렸어. 처음부터 대책이 있었으면 우리가 왜 철거민이 되어서 이 추운 날 고생하는가 말아야"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찾아가 주위를 둘러본다. 이미 폐허가 된 상가에 붙어놓은 '생존권 보장'이란 글씨 마저도 먼지에 묻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그 투쟁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음을 나타내는 듯하다.

어제 승연의 밤 때문인지 피곤해 보이는 주민 중에 철거 대책 위원장인 오익주씨를 만나 보았다. "이제는 나가라고 발로 차도 못 가요. 2년이 넘도록 일도 못하고 이라고 있으면 거역도 밟아먹고 살 지워, 해결 안되면 절대 못가"

그의 말대로 현재 한 가구당 평균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빚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싸움은 그들에게 더이상 협상이나 타협이 아닌 생존이 걸린 투쟁인 것이다.

이에대해 정부는 말장만 끼고 있다. 재개발이 민간 사업이기도 하지만, 자기 돈 들이지 않고 가난한 산동네가 부자 아파트로 바뀌는데 거기서 나오는 세금은 꽤나 매력적이다. 재개발은 오래된 도시를 새롭게 다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문



제는 재개발 지역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우선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게 법으로 정해져야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민간 사업이 정부 주도의 사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재개발을 돈벌이로 생각하고 건설회사랑 용역회사가 아웅다웅하며 밀어붙이기 식으로 철거하려고 하니 문제죠"

"정부가 주도 해야죠. 없는 사람 도와주는게 그래요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우리가 타협이 되면 이제 '하양-2' 지구는 사라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 같은 재개발 정책으로는 제2, 제3의 철거 지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요." 한참의 침묵 뒤에 신음처럼 들리는 그의 말 뒤로 언제쯤 이일이 해결될까 생각하며 본다.

"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 추운 날 헌법을 할때들이 새벽에 찬바람 맞으면서 작대기 들고 지키는 것을 도대체 알기나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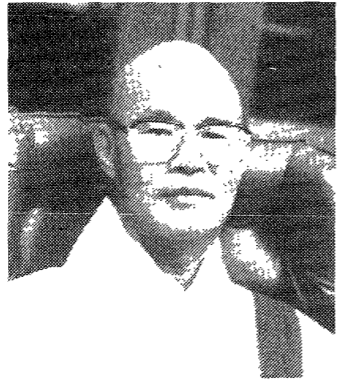
Table with multiple columns listing various organizations, their names, and amounts. Includes sections for '학부 재학생', '각급대학원', '사회·불교신자', '기업, 재단(법인), 단체', '학부모', and '기타'. Each entry lists a name and a corresponding amount in Korean won.

개교 1백주년기념 사업본부

동국중흥 위한 이정표세워야 제3캠퍼스·불교종합병원 건립 등

희망찬 병자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동국의 무궁한 발전과 동국가족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올해는 생각하기에도 벅할만큼 한국 역사상 드물게 있었던 격동과 시련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시대적 사회적 진통은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동국학원과 동국대학교에서는 비교적 내실있는 성장과 발전을 이룩한 한해였다고 자부해도 좋을 것입니다.



특히 이사장과 총장이 새로 취임한 지난 해였습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성원과 단결, 그리고 동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충정으로 제반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거듭 동국발전의 미래를 모색하게 된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개교 90주년을 맞는 새해에는 무엇보다 대학 종합평가에 대비하여 교육개혁에 일관된 대학의 학문적 위상을 제고하고 학사행정의 개선과 내실을 기함은 물론, 우리 동국의 오랜 숙원인 제3캠퍼스의 건설과 불교종합병원 건립 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동국학술문화관의 개관과 더불어 분당 한방병원의 개원, 경주병원의

아울러 오늘의 사회가 도덕적으로 몹시 부도덕하고 황폐화하고 인간상실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환경 또한 오염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인간의 정신을 청정하게 하는 길 뿐입니다.

올바른 심성의 계발과 자아의 구원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와 종교적 구원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불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삼는 동국대학교야말로 올바른 인성교육의 중심지 도량입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나는 과연 동국발전을 위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모색하고 실천하는 물론, 동국학원 산하 모든 교육기관의 구성원들이 올바르게 정직한 삶을 성취하려는 건학정신에 충실하여 자아의 완성과 사회정화에 더욱 정진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새해부터는 '부처님의 크신 자비광명속에서 온나라에 반목과 미움의 기운이 사라지고 용서와 화해의 정서가 충만하여 온 국민이 새로운 번영과 행복을 누릴것과 동국인 모두에게 더욱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이만 신년의 인사에 가겠습니다.

이사장 오복원 함장

신년사

대학의 학문적 위상 극대화 학교구성원의 분발과 성원 촉구

병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해는 우리 한국 역사상 드물게 기록될 만한 놀라운 그리고 많은 정치적 사회적 시련과 파문을 남기고 저물었습니다.

이제 밝아 오는 새해에는 보다 화합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새로운 질서와 번영이 온 나라에 넘치는 명랑하고 성실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동국 가족 여러분의 행운과 우리 동국의 발전을 중심으로 발원하고자 합니다.

새해와 더불어 본인이 총장으로 취임한 지도 1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실로 우리 동국의 역사에서도 일찍이 찾아볼 수 없었던 동국 발전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창출한 뜻깊은 한 해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의 하나가 제3캠퍼스의 건설이 거의 확정 단계로 성숙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참사랑, 열린 교육의 이념으로 교육 개혁의 선도적 추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 동국 대학교에서는 개교 백주년 기념 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학교 발전 기금을 100억 대로 확보하였고, 정상적인 연학 분위기를 위한 교내 환경개선 사업 및 대학원 정원을 2백80명 증원하는 등 실로 획기적인 학사 행정을 다



반드시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대학 시설! 1만 빛들의 생활, 학문, 투쟁을 책임자겠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이자 원칙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나로부터 우리로 나아가는 96년 건강장 청년의 힘과 패기를

KBS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 홍보의 강화 및 전체 동문의 동향과 결속을 촉구할 것이며, 대학종합평가에 대비하여서는 이미 선도적 교육개혁을 시도한 바 그대로 우수 교수의 확보와 재반 교육과정의 쇄신은 물론 석석우수 학생의 조기 졸업, 복수전공의 이수 등 다양한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행히 새해에는 동국 학술문화관의 개관, 분당 한방 병원의 개원, 영남 요원의 구제적 추진 등으로 교육 환경 및 재반 현안 사업 등에도 새로운 전기가 이룩될 것으로 확신하며 거듭 학교 구성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헌신적인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거듭, 새해에도 본인은 동국이 발전하는 길이라면 가시밭 길도 찾아갈 서원과 각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동국인 여러분께서도 "내가 동국의 주인이요 주체"라는 정신으로 동국을 아끼고 사랑하며 동국발전의 대오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건강과 행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총장 송석구 함장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하이텔을 이용하실 경우, DGU 10번게시판이나 ID:dgpress@ail을 통해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80-3491-2 (0561)770-2057

96년 총/학/생/회/에/들/는/다

마스터플랜 제작 성취 필요

내실있는 삶을 예비하는 한해 될 터

60~70년대 뿌리없는 고속성장과정과 물질만능이 가져다준 삼중백화점 붕괴사고와 노점상 최정환, 칠거미 반극변, 이덕인 열사의 죽음과 조수원 동자의 자살을 통해 우리가 이 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을 누구든지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넓고 부패한 사회의 대안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이 인간의 욕망마저 끌어 버리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되는 바로 '인간존엄의 공동체'라는 답을 내었습니다. 96년 우리 동국인은 이러한 가치실현을 위해 살아갑시다.

또한 우리는 5.18학살자 처벌부장의 과정에서,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의 과정에서 다시금 청년과 양심 있는 세력들이 민중과 민중을 생각해야 할 때 역사는 진보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 동국인에게 필요한 것은 잡다한 고민이 아니라 거래의 삶과 더불어 살고, 공통된 민중의 삶을 대변하고자 했던 건학이념의 실현, 그것을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중사적 대전환기 90년대 중반, 동국의 나이는 90살을 먹습니다. 대학개방과 무한 경쟁의 논리 앞에 교육마저 상품화시켜 버리는 김영삼 정권, 그러나 우리는 96년을 동국이 민족대학의 토대를 마련하고 발전하는가 아니면 퇴락의 길로 접어드는가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기에 90년대는 더욱이 소중한 기회입니다. 결처사의 동국발전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건학이념 실현과 진정한 동국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씩 성취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마스터 플랜은 현실에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동국은 내실있는 96년의 삶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 밖에 우리 학우들의 대표조직으로 학생회는 올바른 자리매김을

로 조국의 새역사 창조와 인간존엄 실현을 위해 응징정진합니다.

유병문 (서울캠퍼스 제28대 총학생회장)

학우들 고민 반영 위해 노력 새로운 질서·미래연대 구축 힘써

동국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병자년은 분주하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으로 은방울을 떠나신 선배님과 설레임으로 은방울의 새로운 가족이 되고자 하는 새내기 교우들의 이시기에 웬지 동국의 발전을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새로운 질서·미래 연대의 제13대 총학생회는 병자년 한해를 우리 학우들의 고민과 관심을 받아 안고 1만 은방울 학우와 함께 하는 학생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비록, 5.18학살자 처벌부장에 한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병자년을 발흥하고자 하는 우리 학우들에게 걸림

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만 은방울 학우들의 1년을 정리하는 시기에 비하자면, 5.18학살자 처벌부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병자년의 고민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동국의 운명이 걸려 있는 학부제의 문제도 우리 함께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병자년은 우리 학우들의 고민이 반영되어 동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동국의 위상을 높여주는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장재봉 (경주캠퍼스 제18대 총학생회장)

도서관 이용자 의식변화 필요

도서관의 업무는 대체로 도서관 자료를 수집, 분석, 축적, 이용하는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이용 제공 업무는 이용자와 도서관의 인터페이스(Inter-face)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도서관의 꽃이라고 한다. 하지만 도서관 봉사 업무 성격상 이용자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는 공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발언이 트로피는 곳이기도 하다.

도서관의 질을 평가해 보는 기본적인 방법은 그 도서관이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즉시 그의 손에 넣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많은 자료를 축적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에 따른 불필요한 업무증가와 재비용을 고려해 볼 때, 도서관의 관리능력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다.

첫째, 도서관을 분할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일. 둘째, 입수되는 도서를 청구번호에 따라 서가에 정확히 배열하는 일. 셋째, 이용자가 대충하여 열람한 다음 반납기한 내에 되돌아오게 하는 일. 넷째, 규정에 따라 미납자에게 제발리 대응하여 반납을 받는 일 등이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 정보 미디어의 다양화 등으로 도서관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다. 도서관 이용자의 정보이용 의식이나 욕구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 도서관에서도 '도서관 전산화계획에 따라 이미 '도서관대출반납시스템' '출입자 관리시스템'이 설치되었으며 '소장 도서목록 DB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다음에 '도서분실방지시스템'과 '도서관전산화 종합시스템

(Total System)이 도입될 전망이다. 예산과 공간이 확보되는대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가계도서관의 확대와 보존서고를 제외한 대다수의 서고도 개방할 예정이어서 획기적인 이용서비스가 기대된다. 문제는 이용자가 얼마나 민주시민의식을 가지고, 이기심을 버리고 도서관 설비와 장서를 내컷처럼 사랑하고 아끼며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에게 좋은 말이 있다. 대자대비(大慈大悲) 즉 크고 함없는 사랑과 무릇을, 무욕경건(無慾敬謹), 오만과 욕심이 없어야 진리를 본다. 파시한 정(破邪顯正), 대승적으로 사악과 부정을 깨뜨려서 올바른 법도(法道)를 나타 냄. 이와같이 이기심과 오만을 멀리하고 가끔씩 이러한 말씀을 반복해 보면 우리의 수양은 물론이고 아주 훌륭한 도서관이 운영되리라 믿는다.

임병수 (중앙도서관 열람계장)

목errick

신년인사

"광각은 삶의 죽음이고, 아픔은 죽음의 삶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시작과 끝, 오고 감이 모두 머무는 바가 없다. 과거는 사라졌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

그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이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며 아픔을 아픔다움으로 만드는 시작이다.

그 시작도 좋게 중간도 좋게 끝도 좋게...

- 불교대 학생회장

동/악/광/장

우정할 것입니다.

- 이과대 학생회장

■ 우리 공동의 미래, 희망의 연대를 기치로 발대 발전학생조직의 제2기를 맞이하자.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민족중흥을 위한 동국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1996년은 1906년 동국대학교가 교육구국의 기치아래 개교를 한지 9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996년 희망의 해, 인연의 소중함을 느끼며, 우리모두 응징정진 합시다.

- 법대 학생회장

■ 96년은 동국과 우리사회에 있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동국은 개교 90주년을 맞아 민족의 대항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며 우리사회는 다가오는 충선을 통해 민주정부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95년 우리 민족은 역사창산의 한 길에 힘차게 나섰으며 또한 승리의 역사를 창조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승리의 확신으로 96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국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 경성대 학생회장

■ 1996년 희망으로 가득찬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광복 50주년과 남과 북이 하나되는 통일세상이 오길 희망했던 95년은 역사의 위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희망이 가득한 96년은 희망하고 소망하시

은방울

■ 다사다난했던 95년 삼중참사, 삼수대교붕괴, 대구지하철가소 폭발... 정치세력의 무능과 부패로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동국개교 90주년을 맞이하여 인간존엄 역사창조의 기치아래 새물결 태어난 제28대 총학생회와 더불어 동국의 새로운 발전도약을 기약하며, 예술대학생회 역시 '95대변환기 3백50여 학우와 함께 나갈 것입니다.

- 예술대 학생회장

■ 1996년 희망의 해가 솟고 있습니다! 희망을 만들어가는 1천6백 미리 내걸 젊은 여러분. 언제나 처음 96년을 시작하는 이들의 발걸음에는 거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96년 미리내골은 부활20주년이라는 경축스러운 해이기도 합니다. 미리내골 또한 교육의 질적 발전이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자랑스런 역사를 창조해 나갑니다. 그 길에서 96년 2천이 되는 야간강좌의 젊은 세대들 청춘들과 동고동락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 야간강좌 학생회장

은방울

신년인사

■ 1996년 새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듯이 사회적으로나 학부제가 시작되는 96년에도 한 해를 출발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이야 부르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때는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동국의 모든 학우님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길 두손 합장하여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너무 서가모니불.

- 불교문화대 학생회장

■ 점점 추워져 가는 날씨에 학교 여기저기서 수고하시는 학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짧게나마 인문대학생회의 포부를 말씀드리자면 학부제, 복지문제, 공간문제 등 산재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다룬다 및 자치기구, 학교공공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하나하나 착실히 이루어 내겠습니다. 개선된 학생

대학생회 주도하겠습다

회 개혁하는 시대정신 제10대 인문대학생회가 주도하겠습다.

- 인문대 학생회장

■ 절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민과 실천이 없는 절다는 단지 낭만일 뿐입니다. 우리는 절기에 가능하리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닌 냉철한 분석과 뜨거운 열의로써 학생회의 본모습 찾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96년 새학기에는 학생회를 여러분에게 반드시 돌려 드리겠습니다.

"언행일치"이것은 제9대 젊은 자 연대 학생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정신입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자연과학대 학생회장

■ 안녕하십니까? 7백 법정학우 여러분!

신뢰와 의리의 청년 법정대 건설의 약속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96년 새해를 활차고 보람있는 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청년 법정대 학생회 회장단과 각 부장들은 여러 분과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하여 공부하고 실천하는 학생회가 될 것입니다. 힘있는 학생회 건설에는 여러분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법정대 학생회장

■ 안녕하십니까? 2천 상경학우 여러분!

통일바라기 46년째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지나칠 수 없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 야간강좌 총학생회장

자주적 학생회와 민족대학 건설

는 학생회만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학우가 참여하고 학우들이 주인되는 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2천 상경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제8대 상경대 학생회는 2천 상경학우 여러분과 함께 사람냄새나는 자주적 학생회를 건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상경대 학생회장

■ 벌써 이룬해지려는 지난 겨울의 힘들었던 준비기간들을 뒤로하며, 올해동행 세로이 거느리나. 동국의대를 이끌어 나갈 '긴 호흡 강한 걸음' 제10대 의과학 학생회장 조용성,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희 의과학회는 소위 '새로운 과제'를 맞게된 동국의대 학우대중의 선봉에 서서, 앞으로의 또다른 10년을 준비해 나간다는 자세로서, 긴 호흡을 가다듬어 강한 걸음을 준비하는 역할을 해내기 위해 끊임 없이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려 합니다.

동국의대 전 학우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 의과대학 학생회장

■ 병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야간강좌 총학생회는 이제 두번째를 맞이하게 되었고 역시 학우들이 함께하는 학생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단과대보다는 특수한 환경에서 시작된 학생회라 학우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한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야간강좌 총학생회장



기자랑

▲지난 95년 한해동안 동양의 곳곳을 누비며 동국인의 눈과 귀가 되어주신 전 기자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해나 마찬가지로 올 한해 역시 참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학내 상황을 살펴보면 교수, 학생, 직원 등 각 주체에서 많이 많았던 1월 총장선거를 시작으로 8월에 걸친 협상 끝에 학교측의 동북고교지서 일방 발부르 추진 부지된 등록금 투쟁, 장단기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21세기 기획단 발족, 뒤이은 대학총합평가인정제 연기와 교육제도·과정 개편등을 1학기 주요 사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름방학 2학기내내 학교를 소음과 먼지바다로 만들었던 대대적인 학내 조정공사로 학교가 먼거리로 가는데 학부제 발표와 이에따른 총학생회의 학부제 투쟁, 그리고 뒤이은 떠오른 재단이사장 선거를 끝으로 실질적인 2학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학외로는 대구가속발전과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는 작년에 이어 우리 사회에 민연과 있는 총체적 부정 부패와 무사안일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종합평가·90주년, 행보재촉...자칫 내실 잃을까 우려



참석자

◇서울캠퍼스
김소영 편집장
곽주영 취재부장
이유리 문화부장
박대용 취재1차장
김희동 기자
한상용 기자
김기영 기자
박미희 기자
최승일 기자
고지은 기자
양지연 기자
한누리 기자
이영규 기자
박민진 기자
김상만 기자
이태훈 기자

◇경주 캠퍼스
이민영 편집부장
신형섭 취재2차장
이현주 사회2차장
조인선 기자
이성용 기자
신우용 기자
송선영 사회1차장
박오선 문화차장
허민희 기자
김하얀 기자

◇일시: 1995년 12월 18일 오전 11시
◇장소: 본사 회의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올 한해 가장 큰 사건은 비자금과 12·12반란죄로 전직 대통령 두명의 구속 수감입니다. 이런것들이 정치에 이용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잘못된 역사정신착업이 올해안에는 이뤄져야 겠습니다.
특히 5·18특별법 제정은 비록 특검제도인 부분에서 여야간의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꾸준히 전개했던 5·18학살사태발과 진상규명 투쟁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법국민적 열의이자 역사 바로 세우기의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큰 이슈였던 지난 11월에 있는 민주노동 출범 역시 그동안 산발적으로 흩어져 단일화된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노동층의 단일화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인공기계양사건이나 북한 쌀 지원에서 보여졌던 정부와 보수층의 경직된 태도는 이제 민족화합의 차원으로 발전해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금까지 간단히 살펴본 학내의 전반에 걸친 주요 사건에 대한 평가와 대안마련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내실있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이후 우천 등으로 방중에 끝내지 못하고 학기중으로 넘어간 학내조정공사와 갑작스런 학부제 도입 발표 등 이후의 평가준비가 가시적 향락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과연 평가연기의 근본적인 이유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를 꼼꼼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방중 조정공사 대대적 실시

▲방학을 보내고 학교를 찾아온 많은 학생들은 바뀌어진 학교의 모습에 적지않게 놀랐을 것입니다. 본교는 하계방학때부터 대대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 우선 2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1천4백주의 식재와 후문운동권 미관공사, 학림관 앞 인공폭포, 체육관쪽 수목터널 조성, 만해공정 자연석 쌓기 등이 지난 8월 완료되었습니다.
또 시설보수공사로 명진관 매점 내부개 보수 공사, 주년 포장공사, 과학관·학림관·해화관 화장실 개보수 공사, 체육관 내부 보수 공사, 회화관 및 과학관 외부 도색 공사, 급식관 개수 공사, LAN 관로 공사, 본관 창틀 교체 공사, 교내 도시가스 배관공사 등을 포함해 총 12억6천여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 이로인해 관공스는 학기중에도 공사가 많이 진행되어 지장을 받았고, 도시가스 배관공사로 교내 도로 곳곳이 파헤쳐져 주차문제와 보행불편, 그리고 보양

게 일어나는 먼지 등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또 이번 공사에 대해 캠퍼스의 환경이 나아진 것은 좋으나 강의실이나 도서관 등의 기자재 확보 등이 더 시급한 것이냐는 격정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학부제 실시 논란

▲2학기의 뜨거운 감자가 바로 이 학부제였습니다. 학교측의 학부제 발표 이후 "전면 유보"를 주장하는 학생회와 "일단 실시"를 고수하는 학교측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심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 준비없는 계절별 모집이라든가 반대하는 총학생회는 어떻게 학교의 주체인 교수, 직원, 학생이 모르는 가운데 이러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냐며 전면 유보를 주장했으나, 학교측은 일단 실시의 입장을 고수해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상황은 총학생회의 총장실 점거로 악화, 발전했습니다.
이후 학교측의 총학생회의 총장실 점거에 관한 대화문 발표, 다시 학생회측의 이에 대한 반박 대자보 발표 등으로 나중에는 서로 인신공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혼란 속에서 어떤 합의점도 찾아내지 못하고 학교측의 일방적인 학부제 발표로 상황은 종결되었습니다.
= 학부제 실시이후 변화되는 모습에 학교당국과 학생회는 현재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당국은 실무팀을 만

들어 학부제 실시이후 변화되는 것에 대해 실제적인 규정작업을 하고 있고 학생회는 새로운 학생회구조에 대해 총학생회에서 공약사항으로 제시해 고민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군후학생이나 복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올 1학기 수강신청때 강의시간표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질 못했는데, 강의실·교수확보 등 교육환경마련과 함께 교수·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할수 있는 제도와 학생회 구축사업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재단이사 대부분 유임

▲이번 재단이사장 선거는 예상과는 달리 신기적 끝나버린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개혁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학교측은 일단 실시의 입장을 고수해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상황은 총학생회의 총장실 점거로 악화, 발전했습니다.
= 임기 만료이후의 후임 결정에서도 새로운 얼굴을 찾을 수 없는 채 유임되는 등 이번에도 역시 뚜렷한 개혁의 모습 없이 예전과 변함 없는 형태로 굴러갔습니다.
=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단이 이사장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재단은 동국발전을 위해 그만큼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사나 이사장이 라는 자리는 명실공히 학교발전에 기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총합평가 관리위원회에서 재단 이

대학총합평가연기...내실 기약

▲강원대, 충북대 등 4개 국립대학 및 단세대, 서강대, 한양대 등 14개 사립대학과 함께 올해 평가를 받기로 되어있던 본교는 종합평가합격에 중점을 두던 전반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하기 어렵고, 현재 추진중인 학교발전계획후보가 정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평가를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어쨌든 합격보다는 완공을 추구한 것이지요.
= 이러한 결정은 많은 학내 주체로부터 시기에 쫓긴 급박한 끼워맞추기식의 발전

사를 후원한만큼 총단에서도 학교발전에 대한 지원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생회 운동 변화 필요

▲이번 서울 총학생회 선거에서 특이할 점은 처음으로 3개조가 등록했고, 그중 비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권의 출현으로 유세현장의 문화공연에서 대중가요를 부르는 등 뜻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 비권의 등장과 1차 투표에서의 지지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학생회 운동과 학생들과의 괴리는 위 사실뿐만이 아니라 낮은 투표율과 이에 따른 재투표 등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학생회 운동을 한번 되돌아보고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학-학교측 배겨거리

▲올한해 총학생회와 학생처의 학생과 는 연초 총학생회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사이가 미묘하게 틀어진 후 좀처럼 풀릴 줄 모르더니 결국 1년내내 찬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진의를 파악하지 못한 학교측의 교투리잡기나 직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오고 간 학부제 실시를 안했더라도 때로는 했을 거라는 말은 이러한 서로 간의 불신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 학생회를 대표하는 총학생회와 학생들을 대하는 학교측의 학생과가 서로 반목하면 손해는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후 서로의 서로 간에 대한 입장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
공간 최대문제로 떠올라

▲어쩌면 본교 최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만5천평이라는 좁은 땅에 1만 여명이 살고 있는 본교는 매년마다 공간 문제에 부딪혀 왔고 올해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학과신설, 모집정원 확대 등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한정된 공간에 수용하려니 공간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다행히도 곧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의 학술문화관이 완공됩니다. 많은 동국인들이 학술문화관에 기대를 걸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 실제로 학술문화관은 현재 캠퍼스내에 산적해 있는 공간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해 줄 것입니다.
= 학교측은 공간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또 하나로 제3캠퍼스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잡을 예정인 제3캠퍼스 계획은 부지문제로 진통을 겪다가 연승림과 개인소유부지는 매입했으며 이로인해 인근부지에 금방간 해결될 기미가 있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캠퍼스 총학생회는 "제3캠퍼스가 추진되는 기간 동안에는 경주캠퍼스에 투자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제3캠퍼스 설립계획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 논란

▲한반도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는 막대한 자본의 투자에 맞서 엄청난 문화유산과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경주도심통과 노선이 발표된 92년 이후 노선에 대한 많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다.

= 이에 본교 교수·학생들은 경주통과반대 P.C실치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학교측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는 입장으로 우회노선을 주장하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 대학 각 주체들의 여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지역과 융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모습은 더욱 혼란을 일으킨 것이지요.
대학 각 주체와 지역민의 인식확립과 지역민의 도움으로 노선노반란이라도 율해내어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말도 많았고 말도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이외에도 교육제도 개편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지을때 항상 그렇겠지만 올해 역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생활협동조합결성 문제, 등록금 투쟁, 공간문제 등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남아있기에, 내년은 동국 1백주년을 기념하는 90주년이기에 지나간 한해를 바르게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야 겠습니다.
기자여러분, 다시한번 한해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기록·정리: 박대용 기자)

CALIFORNIA RESTAURANT
COCO'S
미도파

“아빠!, 오늘 외식은 코코스에서 해요”

모처럼의 가족외식,
코코스라면 모두가 의견일치합니다.
171가지 색다른 메뉴와 부담없는 가격, 달콤한 분위기,
흐뭇할 정도로 친절한 서비스...
세계적 명성의 캘리포니아 웨일리 레스토랑-코코스가
가족만의 시간을 색다른 즐거움과 만족으로 채워줍니다.

(서울지역) ■ 신사점 : 548-6904/5 ■ 대치점 : 561-1112/3 ■ 석촌점 : 419-2873/4 ■ 성내점 : 487-2473/4 ■ 발매점 : 522-2527/3071 ■ 미아점 : 989-5492/3 ■ 서초점 : 587-2178/9 ■ 양재점 : 579-7748/9 ■ 이수점 : 536-9677/8 ■ 군자점 : 498-0728/9 ■ 신촌점 : 365-3905/6 ■ 동교점 : 335-1874/5
 ■ 청담점 : 540-2475/6 ■ 대학로점 : 742-1031/2 ■ 서울대점 : 878-4025/6 ■ 명일점 : 426-4855/6 ■ 도곡점 : 3453-5057/8 ■ 여의도점 : 761-1375/6 ■ 평창점 : 395-4438/9 ■ 상계점 : 939-2222 ■ 역삼점 : 565-6094/5 ■ 연희점 : 323-3932/3 (수도권지역) 광명점 : 683-5868/9 ■ 주안점 : (032) 431-4408/9
 ■ 연수점 : (032) 816-0254/5 ■ 부천점 : (032) 613-2383/4 ■ 구월점 : (032) 429-8400/1 ■ 평촌점 : (0343) 88-6482/3 ■ 안양점 : (0343) 43-6351/2 ■ 수원점 : (0331) 33-4731/2 ■ 정자동 : (0342) 712-4364/5 (대구지역) ■ 동성로점 : (053) 421-7614/5 (대전지역) ■ 유성점 : (042) 822-4608/9

동대 문학상

1996년 1월 1일 (월요일)

제 1191호 특집 7

알림

제10회 동대문학상 입상작 발표

시부문

본상 대조영을 생각함
신용성(인문대 국문4)
佳作 별
조우영(아간강좌 영문1)

소설부문

입상작 없음

평론부문

본상 입상작 없음
佳作 람에서 생명의 언뜻으로
박필준(문과대 국문2)

심사위원

시부문 최순열(사범대 국교과 교수·시인)

소설부문

한용환(사범대 국교과 교수·소설가)

평론부문

홍기삼(문과대 국문과 교수·평론가)

시부문 본상 수상작

대조영을 생각함

신용성

몹쓸 북풍에 거세당한 수상한 대륙의 역사여 여기가 어드메쯤
이나 우리 이대로 골장 말을 달려 어디 쏘화강기쯤 가 닿으면 빈
배 가득 포만의 물 채워 담을 수 있을까 그렇다고 돌아다보면 쇠
잔한 왕조 누구 마지막 은자(隱者)있어 압강(鴨江) 너머 떠저가는
성대(盛代)의 학뿔뿔 띄지퍼 올릴 수 있을까

마는 마때도 없이 국경을 넘는 죄 이토록 클 줄이야 듣자면 말
굽 아래 무수히 곱들거리는 푸른 근육의 역사 꽃같은 시절도 있었
나니 내 돌아가지 않으리라 한 세상 적토의 꿈 이루기 전에는 수
치심 가득 안고 돌아오는 줄본의 바람 삼키며 바라보는, 말없는
고구려의 태평연월이 사라나무 밀생한 언덕을 지나 광뿔뿔 뿔발에
들어서니 서련구나 낮익은 원근법으로 나뉘는 국내성의 시린 불
빛 몰락한 왕궁의 귀면기와 막 뚫고 짜어 오른 해당화, 그 붉은

주술을 해독하며 잠 자리에 들면 내 스스로 유형(流刑)의 물소리 되어
흐르리라 자주 물 뒤척이는 물소리 따라 희미해져 버린 역사의 땅
을 자꾸자꾸는 감겨 오는 빈 나팔의 절이면 건설하리라 내 식은
잠의 커튼을 열고 누군가의 몸을 한 바퀴 돌아 빈약한 수백 그 기
를진 땅을 향해 합작해 뿌리 뿌어 올리는 제왕의 꿈으로

시부문佳作 수상작

별

조우영

니
그날 밤
지 암흑의 낙원에서
좌절된 꿈을 시위며 씻는
징열의 몸부림을 보았다
지상에 묶인 우리는
이름답도록 비참한 너의 불늘이
박수를 치며 찬사를 보냈다
이제 너의 꿈이 더 텅 빈 때
우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재깍기 떠날 것이다
하지만 니 알고 있다
니는 꿈을 테운 것이 아니라
좌절된 꿈 속에서 움튼
희망의 불씨를 찾는 것을
그러하여 내 고향심친
미래네기 덮쳐도 끼치지 않는
태양이 비추어도 시그리 들지 않는
영원의 불씨하니 되어
우리 가슴 가슴에 불을 지피리라는 것을

시부문

역사적 상상력·현실의식 돋보여

일단 시는 총괄적 감정의 표현이다. 어떤 대상에 빚어 무엇을 말하려는 욕심
이 앞서다보면 시의 감흥은 상하게 된다. 그 대상으로부터 환기된 정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어내느냐에 우선 주안점을 두는 것이 습작이에는 주요한 연마과정
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 개인적 체험과 정서를 구체적인 언어로 형상화하는 가
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작장치는 어디까지나 감동의 절정성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인
바 때로 불투명한 수사로 읽는이를 끈혹스럽게 해서는 안된다. 자기도취의 감상을
자기만이 해독할 수 있는 암호로 표현한다면 지면과 독자의 신념을 생경한
개념으로 드러내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러나 거친 호흡이긴해도 건강한 역사적 상상력과 현실의식이 치열하게 접합
된 '대조영을 생각함'이 돋보였다. 이에 비해 '별'은 고답적이긴해도 시를 발상하는
정통적인 태도에 신뢰가 갔다. 육심부리지 않고 오랫동안 다듬은 듯한 성실성의
결과가 보였다. 이 둘을 각각 본상과佳作로 뽑아내긴 했지만 '관공'이나 '기다림
의 무의미'는 무르익지 않은 티가 보였으니 진솔한 작사라도가 능히 입선작과 맞
서는 수준이었다. 사실 이보다 '별'과 '달산나무'가 있는 '평론'은 작품을 빛는
순서가 너무 세련되다보니 오히려 참신함을 놓치고 말았다. 이들 4편은 각별히 격
려의 뜻을 밝혀둔다.

최순열
(사범대 국교과 교수·시인)

심사평

투고작품들 사건의 논리적 제시 못해

재능을 잠재하고 있는 습작품은 때로는 완숙한 작품보다 더욱 흥미있게 읽히는
법이다. 하지만 이번의 응모작품들을 읽으면서는 그러한 즐거움을 누릴 수 없었
다.

투고된 6편의 소설들은 공통적인 결함들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사건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제시하지
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담양히 줄거리가 지리멸렬하고 있고 서술의 초점은 실종돼 있다. 소설이 이야
기를 심미적으로 진술하는 문학의 형식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무엇으
로도 보상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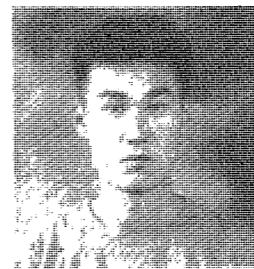
'집으로 가는 길'과 '싸이 트랜...'이 좀 나은 편이기는 하지만 역시 입선의 수준
에 못지않다.

오늘날 소설을 쓰는 행위는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험겨운 일이 된것처럼 보
인다. 언어 이야기인 소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여타의 강력하고 능률적인 수단
들과 경쟁하지 않으면 안되는 위기의 상황과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적 야
심을 꽃피우고자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상하고 비범한 각오와 결의가 새삼 요청된
다.

한용환

(사범대 국교과 교수·소설가)

시부문 본상 수상소감



신용성
(인문과대학 국문과)

입을 다물면
시는 나왔고
그렇지 못한 때
한없이 슬퍼다...
이제 또다른
비상을
준비해야겠다

딱히 할말은 없다. 젊음으로 살아갈이 때가 되는 이광...
입을 다물면 시는 나왔고 그렇지 못한 때 한없이 슬퍼다. 밤마다 제자리를 찾아
주지 못해 무척이나 괴로웠던 내관들의 언어들. 이제 또 다른 비상을 준비할 줄
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늘 안타까운 시선으로 지켜봐준 고향의 가족들, 그리고 국문과의 모든 선생님
께 감사드립니다. 늘 서글픈이 채로 남아 주위를 배회하던 내게 수많은 관심을 이끼
지 않은 고향의 친구들, 특히 용길, 인영, 창호... 동료 정제와도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

끝으로 부족한 이 글을 뽑아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글을
쓰도록 좀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국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전기 '96. 1. 18)

길을 찾는 젊은이가 이르는 그곳-동국대학교!!

참교육, 열린 큰교육을 실천하는 동국대학교가
한국의 내일을 이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3학년에 졸업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재능이 2년에 복수전공이수로 3개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입학한 후에 학업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타대학과의 교류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타교 이수학점이 인정됩니다.

동대신문사 (260-3491~2)에서
합격자 안내를 해드립니다

본교는 알고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중안케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모집 단위별 모집인원

서울 캠퍼스

대학	계열	모집 단위	모집인원
공과대학	인문사회계열	공학부	58
		기계공학부	20
문과대학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90
		한문학과	32
		영어영문학과	40
		언어문화학과	50
		언어교육학과	30
		언어정보학과	30
		언어응용학과(아)	50
		언어응용학과(야)	50
		언어응용학과(야)	50
		언어응용학과(야)	50
이과대학	자연계열	자연과학부	180
		자연과학부	100
법과대학	인문사회계열	법학부	40
		법학부	64
사회과학대학	인문사회계열	사회과학부	96
		사회과학부	32
경상대학	인문사회계열	경상학부	40
		경상학부	50
생명지형대학	자연계열	생명지형학부	228
		생명지형학부	325
생명지형대학	자연계열	생명지형학부	90
		생명지형학부	30
공과대학	자연계열	전자전기공학부	207
		전자전기공학부	104
공과대학	자연계열	공학계열	408
		공학계열	408

경주 캠퍼스

대학	계열	모집 단위	모집인원
공과대학	인문사회계열	공학부	40
		공학부	30
법과대학	인문사회계열	법학부	50
		법학부	31
자연과학대학	자연계열	자연과학부	8
		자연과학부	5
법정대학	인문사회계열	법정학부	10
		법정학부	10
자연과학대학	자연계열	자연과학부	130
		자연과학부	90
법정대학	인문사회계열	법정학부	40
		법정학부	50
법정대학	인문사회계열	법정학부	40
		법정학부	40
법정대학	인문사회계열	법정학부	100
		법정학부	60
법정대학	인문사회계열	법정학부	40
		법정학부	40
법정대학	인문사회계열	법정학부	360
		법정학부	80
법정대학	인문사회계열	법정학부	60
		법정학부	50

합과대학

대학	계열	모집 단위	모집인원
합과대학	인문사회계열	합과학부	64
		합과학부	46
합과대학	인문사회계열	합과학부	390
		합과학부	40
합과대학	인문사회계열	합과학부	12
		합과학부	12
합과대학	인문사회계열	합과학부	12
		합과학부	12
합과대학	인문사회계열	합과학부	13
		합과학부	13
합과대학	인문사회계열	합과학부	40
		합과학부	1,974
합과대학	인문사회계열	합과학부	4,706
		합과학부	4,706

전기, 등, 이촌 학생 특별전형

입시일지 : '96. 1. 18
원서접수기간 : '96. 12. 19~'96. 1. 6 (09:00~17:00)
원서접수기간 : '96. 1. 3~1. 6 (09:00~17:00)

원서접수처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동화서적, 세종문고, 한가람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교민문고, 영풍문고, 원서문화센터, 부산 동보서적, 대구 중보서적, 울산 동학서점, 제주 서귀포 광장서점, 마산 서울고시사서점, 안동 중보서적, 전남 광주일신문고, 수원 흥진문고, 대전 문경서적, 원주 동아서관, 인천 한겨레서점, 조흥은행, 국민은행, 한일은행, 은행위급점(부산, 대구, 마산, 광주, 대전, 전주, 강릉, 춘천, 제주, 청주지점)

서울캠퍼스 :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36번지 (02)260-3031, 260-3032-4
경주캠퍼스 : 780-714 경북 경주시 석강동 707번지 (0561)770-2031, 770-2032-4





제10회 동대문학상 수상작

평론부문
가작 수상작

김지하의 첫시집 '황토'를 발표한 이래 커다란 대중적 호소력을 지닌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담론의 대상이 되었다. 외적으로는 굴절된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는 정치적 실천으로부터 내적으로는 전통 연혁 장르들을 차용한 담시, 대설 등의 문학적 기법에서 보여주는 실험의식이 이르기까지 김지하가 보여준 다양한 시적 작업은 이를 전부 포괄하여 다룬다는 것을 힘들게 만든다.

민요적 가락, 관소리의 어투 등 전통 구비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는 김지하의 일련의 혁신적인 시적 형태의 변용은 그것이 단순한 형식적인 모방이 아니라 현실의 구조적 폭력과 모순 및 부조리를 날카롭게 풍자하는 민중 정신의 창조적 발견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깊이 있는 고찰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그러한 담시와 대설을 빼제하고 70년대 이후의 서정시를 중심으로 김지하의 시적 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부정과 대결의 시학
김지하의 시를 어두운 광범 한 구석에서 가슴 울렁이는 감정으로 읽어 내려가던 세대에게 김지하는 시인일 뿐만 아니라 한 시대의 뜨거운 상징이다. 절나쁜 종이에 골광하게 필사된 '황토'를 골라 들려 읽던 세대의 기억에서 김지하를 끄집어 낸다는 것은 목욕대를 건드리는 순한 격정없는 불가항력인 것이다. 유인물과 구호가 난무하는 거리를 뿌연듯 가득 채운 최후 가스속에서도 김지하의 시는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에 섞여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타고 시대의 한복판으로 변해 나갔다.

정치적 상상력 없는 김지하의 시를, 담론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70년대의 현실에서 김지하를 읽어 낸다는 행위는 미화적 분석을 넘어서는 거대한 역할을

함께 떠받치고 있는 인간 실존의 고통을 함께 체험하는 것이었다.
열어 붙은 저 하늘
열어 붙은 저 별관
태양도 빛을 잃어
아, 캄캄한 저 거리의 거리
(《금관의 예수제1장에 나오는 노래에서》)

태양조차 빛을 잃어버린 현실에서 김지하의 시는 "밤의 어둠으로부터 영동한 것처럼 새벽을 향하여 활짝이며 기어가는"(시집'황토'후기)몸틀거리는 몸짓이었다. 대지에 가슴을 대고 기어넘어가는 눈물겨운 포용의 자세는 그를 감격의 수색, 구속과 고문으로 점철된 "가장 힘든 싸움의 길"(《명문중 일기》)로 다가가게 한다.

정통성이 부재한 폭력적 유신 체제에 대해서 김지하의 시는 부정과 대결의 언어를 거침없이 토해낸다. 팽박을 가해오는 현실에 대한 증오, 견고한 죽임의 세력에 대한 대결의지, 그리고 어둠의 한 자락을 비집고 터져나올 새벽의 햇살을 그리워하는 승리의의 꿈꾸기는 김지하의 따듯한 목마름의 시적 공간이었다. "낯선 술집 밖 흐린 겨울 조각 속에서/어두운 시대의 예리한 비수들/등에 꽂은 초라한 한사내의/검은 얼굴/지친 주름살을 죽음이라고 부르자"고 한, 나약함과 두려움조차 끌어안은 채 현실의 파행성과 불모성의 한가운데를 꿰뚫고 지나가자 했던 한 예스러운 시인은 70년대를 온몸으로 밟고 나갔다.

비극적인 현실인식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가열찬 반역의 의지를 담고 있는 김지하의 초기 시적세계는 70년대라고 하는 이 땅의 역사적 수난기에 맞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문화적 저항의 응원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테리 이글턴이 제기한

정치적 비평의 견해와 부분적으로 결합한다. 김지하의 서정시가 정치적 이념에 의해 지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테리 이글턴의 견해에 부합되지 않지만, 하나의 시적담론이 생산해낸 영향이 정치적 의미로서 배태시킨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김지하의 시가 지닌 정치성은 테리 이글턴과 효과적으로 만나고 있다.

'황토'에 들어있는 김지하의 초기 시편들을 일괄되게 관통하고 있는 것은 폭력적인 현실과의 타협이 아닌, 오히려 그 견너에서 그것을 수긍하지 않으려는 거역의 몸부림, 부정의 정신이다. 그 현실에 대한 지적질 모르는 부정정신은 이 땅이 간직하고 있는 수탈과 오욕의 역사에 맺힌 것을 대고 있음으로 해서 가버린 당위와 선언의 차원을 훌쩍 뛰어 넘는다. 그리고 시인은 척박한 역사의 길을 따라 살아왔던 민중들의 한스러운 삶을 관찰하면서 생성된 고뇌와 비판의 심리적 반응을 정치하게 체험하면서 투쟁의의 결단을 토해낸다.

황토집 선언한
핏자국 핏자국 따라
나는 간다 예비아
네가 죽었고
지금도 걷고 해만 타는 곳
두 손엔 철장들
뜨거운 해가
따고 눈물과 모일발을 태우는
총부리 칼날 아래 더위 속으로
나는 간다 예비아
부추머리 갖기에 숨어가 뿔때
가마니 속에서 내가 죽은 곳
(《황토집》에서)

삶은 탁한 강물 속에 빛나는 푸른 하늘처럼 파랗고 견디기 어려운 것
순진 타는 여름 머나먼 철길을 따라
그리고 삶은 떠나가는 것
아아 누군가 그 밤에 호롱불을 밝히고
참혹한 옛 싸움에 묻힌 아버지
빛바랜 사진 앞에 숨죽여 울다
박하고 일어섰다.
(《비나산》에서)

인용한 두 편의 시에서 드러나 있는 황토집, 핏자국, 총부리, 칼날, 철장들 등의 단어가 짐작할 수 있듯이 현실의 고단함과 비참함은 "총알 아래 쓰러져 간 나의 예비아"가 저항하던 "척박한 시적인"시대의 다르지 않다. 현재의 삶 역시도 "피로하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며 "검은 해만 타는 곳"인 것이다.

"참혹한 옛 싸움에 묻힌 아버지"의 삶은 이제 빛바랜 사진으로 밖에는 남아 있지 않지다 "숨죽여 울다/박하고 일어섰다"라는 표현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거역과 투쟁의 길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시편들에서 고난에 찬 삶으로의 선택을 이끌어 내는 예비아는 "나의 예비아는 종이였다"라거나 "나의 아버지는 남로당이었다"라는 진술에 포함된 반체제로서의 아버지와는 구별된다. 김지하의 시에서 예비아는 아들에게 있어 뒤따라 가야할 추구의 대상이며 실현해야 할 대제이다. 예비아와 아들 사이에는 어떠한 삶의 방식에 있어서의 모순이나 균열이 없다.

"부추머리 갖기에 숨어가 뿔 때/가마니 속에서/죽은 아버지의 핏자국을 밟고 가는 아들의 두손은 철장들로 동여매어져 있고 등 뒤에는 총부리 칼날이 있다. 그러나 나는 간다 예비아"라고 말하는 아들의 어조에는 조금의 머뭇거리거나 주저함도 엿볼 수 없다. "길고 잔인한 여름"의 현실이기에 오히려 떠나가는 삶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을 인식되는 것이다.
황토와 뜨거운 해 그리고 "정원 드높은 하늘"이 빛내주는 시적 풍경은 선명반 색채 이미지 대조로 인해 강렬한 인상을 준다. 붉은 빛과 푸른 빛 그리고 흰 빛의 동시 공존으로 인해 "뜨거운 남쪽은 반란의 나라"(《남쪽》)라는 진술을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각각의 색깔이 표상하는 이미지의 세계는 서로 충돌하면서 들끓고 동요하는 세계의 모습을 정출해 낸다. 특히 모든 사물을 파괴하고 부수려는 욕망은 불이라는 구체적 이미지로 변주되어 '황토'라는 시편들은 그것을 보여준다.

황토에 황토에 황토가 일어 쳐라
나는 물덜어리 너는 물덜어리
나는 너의 물덜어리
차라리 서로 부딪쳐 파멸해 버려야만
속시원할 난장의 빛발 아래
황토가 일어
(《황토》에서)

햇빛이여 그슬러라
하늘을 온 세상을
(《녹두꽃》에서)

시집집 '타는 목마름'으로 실린 제1주 '황토 이후'편은 참혹한 역사의 현장으로 황토집을 걸어 떠났던 시인이 강고한 독재 권력의 탄압에 의해 감옥에 드나들면서 경험한 고통이 진솔하게 묻어 있다. '황토'에서 보여주었던 현실의 '바극성'은 여기에서도 '지옥' '허기' '빈산' 등의 제목에서 배어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반복되지만 주된 시적 공간은 폐쇄된 감옥의 감옥으로 옮겨져 있다. 시인에게 있어 감옥이라는 공간은 "슬픈 밤 지하실의 문부림 치던 붉은 빛"(《어둠속에서》)으로 표현되는 끔찍한 고문의 공포와 "기다릴 뻔엔/그 무엇도 남김없는 세월이여"(《꽃》)라는 그리움의 대상으로서의 자유에 대한 애타는 갈구로 체험된다. 이 지독한 기다림을 시인은 "이 기다리는 길고 긴 세월,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한 없이 그저 기다리만 하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마치 것 같은 기다림"(《고행 - 1974》)이라고 고백한다.

1974년 1월을 죽음이라 부르자
우후의 거리, 방승을 들고 사라지던 네 속의
빛을 죽음이라 부르자
좁고 추운 네 가슴에 일어붙은 피가 터져
따스하게 이제 마 흐르기 시작하던
그 시간
다시 처음 눈보라를 죽음이라 부르자
"1974년 1월에서 시인은 당시의 현실을 과감하게 죽음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선언이 슬로건의 승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시인이 직설적인 공격의 목표로서 삼아 비판하는 것은 1974년이라는 한정된 시대를 넘어선다. 이 시는 다시 봄날의 꽃샘 추위를 뚫고 꽃들과 일새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시인 자신 더 나아가서는 "두려워 하는 두려워하는/저 모든 눈빛들"이다.

여기에서 시인은 성숙한 태도로 안과 밖, 아이와 세계 모두를 성숙있게 들여다 보고 있다.
"그것은 빈산"에서 묘사된 "저 침묵한 산맥 속에/숨어 타는 숲"의 처지에서든 내일의 불꽃을 포기하지 않는 저에게만 가능한 의지함이다.
피투성이든 피투성이든
죽인 나와 마주 서라고
미주 서 밤 새워 몸부림치라고
(《나팔소리》에서)

저 절명한 하늘
저 흰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울리나
나는 새여
죽인 이 가슴
(《새》에서)

아직 시인의 들은 간접적으로는 현실에, 직접적으로는 감옥에 묶여 있다. 그러나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몸에 멈추어 있던 시인의 시선은 자신 공중으로 치켜올려져 나는 새를 보고 있다.(떨자기가 보기 어려워지는 시선의 변화는 시인이 가지는 정신세계의 방향을 유추하게 해준다. 김현이 했던 말을 인용해 보자면 사람은 보고도 하는 것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선의 변화는 '황토'이전의 초기 시들부터 소급해서 보자면 시인의 눈을 결단해 머뭇거리려는 자아, 황토집으로 대표되는 대지, 그리고 새들이 있는 하늘로 움직이고 있다.

II. 생명과 긍정의 시학
80년대, 김지하가 길고도 오랜 수감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문학적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을 때 그의 서정시는 담론적 수위를 정도로 새로운 양상의 변모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전까지 김지하의 서정시들이 내재되어 있던 현실에 대한 미칠 듯이 끓어 오르는 분노, 격렬한 항의와 복수에의 다짐은 차분하게 내려앉고 부드럽게 다져져 있었다.

김지하를 70년대의 엄혹한 현실에 대한 저항의 코드로 해석하고 급박한 호흡으로 김지하의 서정시를 읽어 내려갔던 사람들에게 '에린' 이후의 내밀한 감정의 결을 보여주는 그의 서정시는 또다른 독법을 필요로 하였다. 그렇지 못할 때 김지하의 서정시는 정치적이고 투쟁적인 시로부터 영혼과 내면에 관한 서정적인 세계로의 퇴행적인 도피어이라는 식의 70년대와의 철저한 단절로 오도될 수밖에 없었다.

70년대의 김지하의 서정시는 비참한 역사가 부과한 시대적 모순을 타파하려는 정치적인 의미를 필연적으로 품어 안고 있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정치적 의미가 의도된 선도를 의한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70년대 김지하의 서정시는 정치적이지만 양음으로 해서 정치적 안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테리 이글턴이 말하는 정치적 비평은 그러한 비정치성의 정치성, 김지하의 모든 시적 담론을 정치적 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현실에 대한 유용한 분석적 도구로서 김지하의 서정시와 접점을 형성할 수 있었다.

70년대 김지하의 서정시에서 역사적 맥락을 제거한 분석의 방법이 부당한 것처럼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창작되는 김지하의 서정시에 극단적으로 정치적 의미를 투과시키려는 의식적인 노력 또한 하나 있었다. 80년대 김지하의 시적 변화를 설명하는 내면으로의 회황, 점진적으로 부터의 이탈 등의 표현문구에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중심으로 비생산적인 시적 논의의 장으로 김지하의 시를 끌고 들어가 탐미적이라는 음흉한 의도가 감추어져 있다. 80년대 김지하의 서정시의 위상을 바르게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정치적이지가 목용하는 정치성, 조작된 정치성으로 부터 김지하의 서정시를 분리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에린'이후의 김지하의 서정시는 생명사상과의 연관 속에서 상호소통의 관계를 이해할 때 온전한 시적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김지하의 생명사상에 올바른 접근과 인식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데, 김지하의 생명사상을 추상적 신비주의나 오도된 정신주의로의 추락으로 감금시키고 더 이상의 사유를 차단할 경우 김지하의 80년대 서정시 역시 냉두구조로 전락하여 그 이전과의 연속성을 보지 못하게 한다. 김지하의 시에 있어서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그의 김지하론 '김에서 밖으로에서' '소멸하는 존재의 밖에서'를 연구하던 그 어떤 초월적 존재를 이제 그 소멸을 믿고, 소멸 속을 돌아다니며, 그 소멸을 흡수하며, 자신의 내부에서 꽃피우려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연속선상에서 70년대와 80년대의 김지하의 서정시를 파악하는 관점의 심층에는 생명사상에 대한 섬세한 읽기와 예리한 분석이 놓여져야 하는 것이다.

김지하의 칼을 감추고 꽃을 내미는 생명의 철학은 '에린'에서 "찬 것/노란 것/딱딱한 것 녹슨 것/낡고 썩고 삭아지는 것"을 거부하고 무엇이든 "동그랗고 보드랍고 매랑매랑함/무엇이든 가볍고 밝고 작은 해맑은"(《결합》)것들을 만지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형태를 바꾸어 존재의 심연에 스며든다. 이 욕망은 시인을 비틀거리면서도 에린을 찾아 헤메도록 만든다. 그러나 시인의 '소를 찾아 나서다'라는 서사를 읽어보면 "네 얼굴이/에린/네 목소리가 생각난다"고 에린의 상상을 토로한다. 시인은 과거 언젠가 보았을 적이 틀림없는 에린을 지금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기에 시인은 "노을진 낯선 도시/거리 거리를 찾아 헤맨다"
시인이 에린을 찾아 떠돌아 다니는 공간은 노을이 진 낯선 도시이다. 뜨거운 햇살이 비추는 대낮의 남도를 살아가던 시인은 캄캄한 지하실로 묘사되는 감옥생활을 거쳐 노을이 지는 시간에 낯선 도시에서 있다. 이 낯선 도시에서 시인은 외롭다. 홀로 타오르는 카바이트 불꽃은 고독한 시인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저저 얄드린 표정미차 좌편 위에
타오르는 카바이트 불꽃 홀로
가느다리게 애잔하게
가투 나신 젊은이를 노래 소리에 흔들린
다.

세상을 온통 불사르고자 하는 강력한 자기 소멸의 의지로 형상화되었던 불은 어느새 사그라들어 카바이트 불꽃으로만 흔들리고 있다. 그 가느다란 애잔한 불꽃은 은은한 노을의 빛과 몸을 섞으면서 현재 시인의 저저 얄드린 심리적 상황을 정치하게 반영하고 있다.

에린에 대한 그리움으로 조금씩 동그레지고 보드라워지고 해맑아짐을 경험하고 온종일 "동그라미를 대구 그려썬는"(《결합》)행위를 하던, "어디에 선가 부처져 돌아온 사람"(《발자국을 보다》)인 시인은 기억조차 희미해진 에린의 자취를 더듬어 나가다가 사물과 인간의 다양한 변용, 유동하는 생명의 실상이 곧 에린임을 깨닫는다.

내 속에서 차츰 크게 열리어
저 바다만큼
저 하늘만큼 열리어
이내 작은 한 덩어리 검은 돌에 빛나는
한 오리 햇빛
에린
나
(《그 소 애린 50'에서》)

에린은 존재의 바깥에서 읽어 버리거나 찾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차츰 크게 열리어는 것이다. 그 열림이 "입 있어도/말 건넌 이 이 세상이 없고/주먹 쥐어보나/아무것도 아젠 쥐어질 것 없는/그리움마저 끊어진 자리"(《그 소 애린 4'》)에서 이루어진다는 인식은 시인의 쓰라린 절망과 회황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더는 갈 곳 없는 땅 끝에 서서 시인은 "새 되어서 날거나/고기 되어서 숨거나/바람이거나 구름이거나 귀신이거나 간, 에"(《그 소 애린 50'》)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죽음과 태어남이 에린이라는 생기는 시인에게 이성복의 시어를 빌지 않으면 "깊이 갈라진 곳에서 같은 다시 시작된다"라는 부활과 새로운 태어남에의 기대를 갖게 한다.

꽃 없는 바로 열매 맺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중략》...
이것 봐
열매 속에서 속삭이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어떤가
(《무화과》에서)

'무화과'라는 이름답고 감동적인 시에서 시인은 꽃이 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열매 속에 꽃이 피어 있다는 놀라운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인식이 지니는 70년대와 80년대의 김지하 서정시의 거리라면 그 인식의 전환은 그것을 뛰어 넘을 수 있는 화해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80년대 김지하의 서정시의 세계에서 70년대는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속삭이 있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왜 김지하 서정시의 변모를 단층적인 불연속으로 파악해서는 안 되는가)를

현실과 존재 자신에 대한 두 겹의 부정의 속삭임 열매로 감싸여지는 자리, 그것이 바로 에린이고 생명철학이며 80년대 김지하 서정시의 지리인 것이다.
김지하의 서정시는 현실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과 대결의 논리에서 공경과 생명의 논리로 변모하며 시적 세계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심화시켜 왔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억압받는 세상을 향한 변형없는 열정의 시적 개척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김지하의 서정시는 시집'중심'의 피로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빈가지에 꽃을 트는 삶의 경험을 노래하는 거대한 생명적 세계관을 통해 근대를 넘어서는 문명사적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틈에 대한 관심으로, '비움'에 대한 긍정적 이해의 전환으로, '중심'중심주의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 김지하의 시적 사유는 인간과 자연, 나아가 우주 전체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유가 모든 인간과 사물을 자르고 흡수하는 비생명의 폭력에 대한 실존적인 치열성을 잃어버릴 때 김지하의 시는 어쩔 수 없이 퇴락할 수 있다. 현실을 대상으로 수렴과 확장의 생명사상적 실험을 보여주는 김지하의 서정시가 경계해야 할 위험은 바로 그것이다. 김지하의 크고 넓은 기력이 펼쳐보일 앞으로의 서정시가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이 땅 문명의 새로운 지평이 피기를 희망하는 것은 필자만의 기대가 아닐 것이다.

평론부문 심사평

표면적 변화에 감춰진

김지하 문학정신 옹호...설득력 지녀

평론 '칼에서 생명의 연꽃으로'를 읽었다. 이 글은 제목이 설명하는 것처럼 김지하의 문학이 어떤 변화를 보여왔는지 그것을 시대의 순서에 따라 일별하고 있다. 이 글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김지하의 저항적인 문학이 80년대를 지나며 반민중적 온건주의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비판을 논박하면서 그 수사적, 표면적 변화속에 감춰진 김지하의 변함없는 문학정신을 옹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 점에서 이 글은 일단 설득력을 지닌다. 또 하나의 주장은 80년대 이후 그의 생명사상이 서구적 이원론이 아니라 동양적 일원론에 토대를 둔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설득력은 충분치 못하다.
덧붙인다면 작품을 꼼꼼하게 읽는 비평적 섬세함과 주장하는 바 자신의 논리를 서두르지 않고 분명히 논지를 세우는 힘이 아직 부족하다. 용어를 바르게 골라쓰는데 더 힘써야겠다. 그러나 비평적 주장에 공감하는 바 있어 가작으로 가린다.

홍기삼
(《문과대 국문과 교수·문학평론가》)

평론부문 당선소감



김지하의 시들을
하나의 줄로 꿰어
이어보고 싶었다

박필준
(《문과대 국문과》)

김지하가 조선일보에 "죽음의 국관을 걸어 치워라"고 호소하던 그 때, 나는 한 없이 낯설기만한 서울 거리를 최후가스 문은 웃으로 떠돌아 다니고 있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이리 저리 뛰어다니다 보면 어느새 어둠이 거리에 내려앉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갈 수조차 없어 학생회관에서, 어느 지하철역에서 파곤에 지친 몸을 짐작처럼 내던진 채 잠들곤 했던 대학인생 시절, 나의 허름한 상의 안쪽에, 고통스럽게 말쑥치며 읽었던 김지하의 시집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더이상은 김지하의 시는 다른 이들에게 눈물 글썽이며, 숨가쁜 격정을 불러가며 읽어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진보적이고 변혁적인 입장의 변질로, 후퇴로, 정산으로 규정당한 김지하의 시는 경계와 비판의 대상으로 변해 있었다.
현실과 차단된 균형을 하며 나는 조심스럽게 김지하의 시집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70년대와 80년대 이후의 김지하의 시들을 하나의 줄로 꿰어 이어보고 싶었다. 그 결과가 보일 것 없는 '칼에서 생명의 연꽃으로'라는 글이다.
미흡하고 모자란 글을 다듬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영우, 이종대 선생님, 함께 이 글을 돌려 읽고 진지한 질문을 던져 주었던 국문과 2학년 후배들, 그리고 거리에서 사람을 배웠던 벼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동대 학술상

1996년 1월 1일 (월요일)

제 1191호 특 집

9

중국 성론(性論)의 시발

— 맹·순에 나타난 성의 고찰

인문과학부본 수상작

인문과학부본 심사평

소재선택·논술방식 등 탁월

결론부 주제부각 아쉬워

논문 '중국성론의 시발'은 맹·순의 성설을 비교고찰한 것으로 본래의 주제에는 약간 미흡한 바가 있다. 그러나 필자가 이제 학부생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논문의 작법이나 논지의 전개에 있어서 크게 평가할 점이 있다. 다만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의 학설을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았어 특징을 찾아 보기 어려우나 성선론, 성악론이 각각 다르게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연구는 좋은 착상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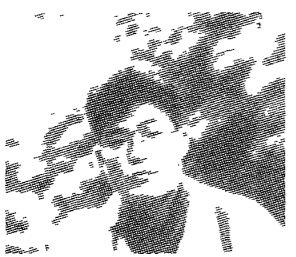
논문의 짜임새와 이러한 착상을 호평하면서 학부생들의연구열을 고무시키기 위하여 이 논문을 본상의 대상으로 선정한다.

송재운

(문과대 국민윤리학과교수)

인문과학부본 수상소감

“급변하는 시대에
맹자·순자를
읽조리는 까닭은
온고의 과정이
아직도 절실한
것이기 때문”



박동호

(문과대 철학과)

선배의 권유로 신문사에 실려야 하는 논문을 제출하게 되었다. 본상에 당선이라는 소식을 접하고서 기쁘기도 했으나 부끄러움이 앞섰다.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과 시간의 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당선된 당근과 채적으로 여기며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

현대사를 접한 과학의 시대, 혹은 컴퓨터시대를 꿈꾸며 살아가는 시대라부르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고 새로운 지식이 날려가는 시대에 굳이 왜 맹자·순자를 읽조리는가?'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피할 수 없게 느껴지고 있다.

그러나 은고이치신(溫故知新)이라는 공자의 가르침이 새삼스러워 떠오른다. 시 읽던것을 다시 배우는 것을(溫)이라 하며, 옛 서적 가운데서도 세월의 시련을 이기고 불후의 가치를 얻은 고전을 고(故)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은고(溫故)의 과정을 거쳐야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 주체성 있는 취사선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미래를 위한 지식 체계가 굳건한 기반 위에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주체성의 자각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기수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여긴다.

중국 성론(中國 性論)의 시발(始發)이라고 한 이유는 첫째, 유가사상에서 그 출발점이 인간 자신에게 있었고, 둘째, 인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수양의 문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고 셋째, 맹·순 모두가 유가의 태두인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고자 했고, 넷째, 그들이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철학과에는 학회란 모임이 존재하고, 그 속에 동양철학과 한문학술이라는 스터디 모임이 있었다. 그 중 한문학술은 대학원 선배, 졸업생, 재학생 등으로 구성되어 중국 고전의 원전강독을 했었다. 거기에서 맹자와 순자의 원전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 결과물로서 본 논문이 나오게 된 것이다. 지도의 격려와 집착을 해 주신 철학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알림

제33회 학술상 입상작 발표

- ◇인문과학부본: 본 상=중국 성론의 시발
박동호(문과대 철학3)
- ◇사회과학부본: 본 상=지방자치체 발전과 있는가
김시용(사과대 정의3)
가 작=미학의 재정립을 위한 시론
임원철(사과대 정의2)
- ◇자연과학부본: 본 상=나팔꽃과 고구마의 점액제배에 대한 연구와 그 이용상의 개발
서준혁 외 3인(생자대 응생4)
가 작=식물성장에 관여하는 균근의 역할에 대한 연구
정성원 외 2인(생자대 응생4)
- ◇심사위원: 인문과학부본: 송재운(문과대 국민윤리학과 교수)
사회과학부본: 심익일(사과대 행정학과 교수)
김일중(경상대 무역학과 교수)
황태연(사과대 정의학과 교수)
자연과학부본: 김혜영(생자대 응생과교수)

동대신문사

1. 서론

동양철학을 크게 우주론, 심성론, 수양론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사상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본자는 이러한 것을 견지하고 특별히 맹(孟)·순(荀)의 심성에 주목하여 동양철학의 궁극적인 수양에 나아갈 수 있는 단서를 찾아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성론은 그 자체가 복잡한 문제이기거나 대상이 뚜렷하고, 비록 심령적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직관이나 반성이나 직접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인간의 본성에 관한 해명을 우선 제시하였지만 그 결과로 나타난 경향성에 더 주목하였다.

먼저 중국철학에 있어서의 '성(性)'에 대한 갖가지 견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본 뒤 맹자에 나타난 성에 대한 고찰을 해 보겠다. 또한 고자(告子)와의 논쟁을 봄으로써 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고 심(心)과 성(性)의 관계를 구명해 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여겨 그 관계를 알아보겠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들로 해서 맹자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새겨 볼 것이다.

순자에 있어서는 크게, 순자가 지향했던 사상을 알아보는 것이 주요목표이다. 우선 순자의 성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 보고, 맹자에 대한 비판과 그 시대적 상황에서 성악(性惡)을 주장하며 근거를 살펴보겠다. 성악이라 할 때의 성(性)을 정(情)으로 보는 주장과 성에서의 악(惡)은 악의 방향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주장을 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 성악을 주장함으로써 순자가 지향한 궁극적 목표를 살펴보겠다. 본자는 맹자·순자의 성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추구했던 이상을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인성(人性)이 드러난 현상으로 그것들이 어떤 이상성으로 소출(黜出)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려 한다.

II. 본론

1. 중국철학에 나타난 성론(性論)
흔히들 유가(儒家)의 사상을 인간중심의 사상이라 한다. 이러한 인성(人性)은 본론 성론은 인성론(人性論)을 말하는 것이다.

우선 중국철학사상에 나타난 각각의 성의 성론을 살펴보면, 그 학설들은 성의 본래적 성·악·여하, 성심·성악 양설의 정중, 성의 성(性)·법(法)의 차이 여하 그리고 성의 내용적 분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듯 성에 대한 여러 이견이 분분하다. 시기적으로는, 중국 인성은 은·주 고조(기원전 1200년 전후)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고대의 일반적 경향은 맹자보다 오히려 고자 쪽에 가까웠다. '성(性)'자는 본래 '생(生)'자와 적용되며, 생리적 욕구본능 같은 것으로 쓰였다. 어떤 이는 '성'자는 '심(心)'과 '성(生)'의 합성임을 지적, '성'의 뜻을 생리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의 복합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자의 의미에서 변천과정을 본다면 먼저 생리적인 의미로 쓰이다가 차츰 심리적인 면에서 이해하게 된다. 즉 맹자에 이르러서야 '성'의 의미가 확실해지므로, 맹자 이전은 아무래도 생지위성(生之謂性)이라고 한 고자적인 성론시대로 보아야 할 것 같다.

2. 맹자에 있어서의 성(性)
1) 고자와의 논쟁에서의 성
앞에서 보았듯이 성에 대한 이론은 맹자 이전에도 있어 왔다. 그러나 맹자는 성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여 성선(性善)을 주장했다. 성에 대해서는 고자(告)편에 잘 나타난다.

고자는 인간의 본성을 유전된 버들과 같다고(猶柞柳)고 본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인위를 행하는 것은 마치 버들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에 맹자는 버들의 본성으로 그릇을 만들지, 억지로 꺾고 다쳐가면서 그릇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다시 고자는 성을 소용돌이치는 물과 같다(猶流水)고 주장한다. 즉 물은 동쪽으로 터지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지면 서쪽으로 흐르듯 인간의 본성도 선(善)·불선(不善)이라고 구분 지을 수 없음을 물의 흐름을 동이나 서로 나눌 수 없음을 같다고 한다. 이에 맹자는 물은 확실한 동·서의 구분없이 흐르나 상·하의 구분이 없었느냐며 인간의 본성이 착한 것도 마치 물이 본래 아래로 흐르듯 고자하는 것과 같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고자는 생이 성이라고 한다. 맹자는 또 생지위성이라고 하던데 흰 것을 희다는 것과 같고, 결국은 개의 본성과 소의 본성이 같고 그것

은 인간의 본성과도 같지 않겠느냐며 반박한다. 여기서 고자는 식(食)·색(色)이 성이라고 주장하며 인(仁)은 마음속에 있고 의(義)는 외부에 있다고 한다. 맹자는 또 반박하기를, 흰 말의 흰 것과 흰 사람의 흰 것은 다른데 없으나 붉은 말을 높이는 것과 연장을 높이는 것은 다르다고 하며 연장자라고 말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연장자로 높이는 것이 의라고 한다. 그러므로 인의(仁義)는 내재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중에서 맹자가 말하려는 성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첫째, 성이란 그 사물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 물의 본성은 상·하에 있는 것이고 억류현상 같은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다. 인성이 착한 것은 바로 물이 아래로 흐르려는 것과 같다고 한다.

셋째, 만유에는 모두 성이 있으나 인성만이 선하다는 주장이다.

넷째, 인간에게는 동물적 본능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본능으로 해서 인의를 의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로써 맹자가 성을 인간의 본성으로 보고 그 본성은 선이라고 주장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이 착하므로 심숙의 그 착함을 구하고자 하고, 그 심을 잘 지키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다.

3) 성(性)과 심(心)의 관계
맹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성선을 주장하며 성을 주장하며 전국시대의 혼란하고 패도가 만연하는 가운데 옛 성현의 도를 전수하고자 노력하였다. 성을 바로 알아 그 본의를 실천하는 것이 곧 천(天)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여 하늘에서 주어진 심을 발휘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면 천부의 심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아보자.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불인인심(不忍人)의 고통을 그분 보고 남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예를들어 우물에 빠진 아이를 보면 깜짝 놀라고 측은한 생각이 들어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를 구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측은(惻隱), 수오(羞惡), 사양(辭讓), 시비지심(是非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고육언을 하고 있다. 불인인심(不忍人)의 심을 확대하여 측은하게 여기는 심정은 인(仁)의 근본이고, 수치를 알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은 의(義)의 근본이고 사형하는 마음은 예(禮)의, 근면이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지(智)의 근본이라고 하여 사람이 사지(四肢)를 지니고 있음과 같이 사단(四端)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인의의지는 밖으로부터 와서 나를 덕화(德化)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반박부여 있는 덕성이란 것이다. 다만 그런 것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를 이라고 한다. 그래서 본성의 주체적 자각으로 덕을 구현하여 대인의 경지를 지키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본성을 발휘하면 인성이 선함을 알 수 있고 그 선함은 바로 천리(天理)라는 것이다. 그래서 도는 하나, 곧 선을 행하는 것뿐이라고 맹자는 단언한다.

이러한 성은 심의 본체와 기초가 된다. 그리고 성의 공능표현(功能表現)이 마음이라고 하여 마음의 활동이 성의 내용을 실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4) 성선(性善)으로 유가의 전통을 세움
인간의 본성은 선하고 그것을 확증해 나가면 반드시 요일금이나 순임금 같이 성현이 할 수 있다고 한다. 요와 순은 중국 유가철학에 있어서 최고의 성현이다. 위 문중에서도 보여지듯이 인간은 누구나 동등한 성을 타고 났으며, 수양 여하에 따라 성(聖)과 범(凡)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성이 선함을 먼저 인식하고 그것을 확증해 나가야 함을 강조한 말이다. 그 수양공부의 최고목표가 요순지도(堯舜之道)이고 대인(大人)·성인(聖人)이 되는 것이다. 대인이라 함은 우선 자기를 바로게 하고 나아가서는 천하의 만물도 바로 잡아주는 인물로서 맹자에게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찌든 단명하게 보여준다.

이것은 대학(大學)에서 수신 이후에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유가사상의 큰 특색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요순지도는 효(孝)와 제(節)를 지키는 것뿐이라고 한다. 효의 제는 사람이 배우지 않고 알 수 있는 양태(良態)이고 양지(良知)인 것이다.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마음을 넓혀 전하여 널리 베푸는 것으로 인이라든가 그렇게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이 아닌 것이다.

3. 순자에 있어서의 성

순자가 지향했던 사상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사회는 어떠한 사회였을까?
비십이지자(非十二子)편에서 순자는 위로는 순(舜)·우(禹)의 제도를 본받고 아래로 중니(仲尼)·자공(子弓)의 의리(義理)를 본받아 심이자의 변설을 침묵시키는데 힘쓰면, 천하의 해독이 없어지고 인자의 일이 성취되고 성왕의 행적이 드러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당시 혼란했던 제자백가의 경론을 배척하고, 유가의 전통을 바로세워, 천하의 어지러움을 제거하고자 노력했음을 볼 수 있다. 후대에는 도통(道統)을 공자에서 맹자로 이어져 오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순자의 의도는 공자의 올바른 이해와 선왕의 공적을 바로 알리고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 예를 중시하고 학(學)을 강조함으로써 수양의 근거를 세우려 했던 것이다. 그러한 수양을 목표로 삼아 그의 이론을 제시하려 했던 것, 유가의 전통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순자의 성악론을 살펴봄으로써, 후세 유가들에게 맹자 못지않은 영향을 주었음을 고찰해 보겠다.

1) 성의 의미
먼저 순자는 맹자와 달리 성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알아보자.

성악론에서 순자는 나면서부터 그러한 것을 성이라 하고, 또 성의 음양의 배합에 의해 생긴 정신이 인부사물에 접해서 느끼는 반응으로 후천적인 작위가 없이, 스스로 그러한 것을 성이라 하며 성의 회노악락을 정(情)이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천부(天賦)의 것이 성이고, 인간이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작용의 원인 또한 성이라하여 감정(情)만을 나타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순자에 나타난 성을 정리해 보면 첫째, 성은 천부적인 인간의 본성 또는 본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천부적인 성이 삶에서 서로 감응하여 주어진 인(仁)으로서가 아닌 자연적인 것을 성이라 한다. 삶에 있어서 스스로 변화가 능함을 내포한 것이 성이라 보고 있는 듯하다.

셋째, 성은 자의에 의해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 인간의 노력여하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2) 성악의 주장근거
순자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한다. 성을 악하다고 보는 것이 성악설인데, 맹자의 성선을 비판하면서 순자는 그의 성악설의 존재근거를 세우려 한다.

그리고 성악설을 알고 그로 미루어 사물의 이치를 알 수 있다고 하니, 그 관통한 이치가 역언가지라든가 그 지향점 즉 그치는 바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그 귀착점을 성인의 경지로 보고 있다. 이상으로 꿈꾸는 성인연의 도달방법은 학문을 하는 것 즉 자기수양(自己修養)이다.

이렇듯 순자는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권하여 원만한 덕을 구비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인성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1) 맹자의 성을 비판
순자에 있어서 인성의 악함은 맹자의 비판에서 분명한데, 성악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순자의 비판의 초점은 맹자는 성을 착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타고난 본성과 그 타고난 본성을 갖고 뒤는 인위의 성정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 한다. 그 구분을 확실하게 하면 성은 악이요, 그 후천적 노력은 위(偽)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구별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나면서 그 소박을 떠나고 그 소질을 떠나기 마련이므로, 인성은 악하다는 것이다. 소위 성인이란 것은 그 소박한 것을 떠나지 아니할 때를 아름답게 보고 선으로 본 것이지만, 보는 것의 밝음과 눈을 떠나지 않음은 구별되어야 한다며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보는 것의 밝음이 눈의 본성이려면, 눈을 떠나지 않음은 인위적 노력, 즉 위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배고프면 먹고 싶은 것이 당연하나 먹지 못하는 것은 어찌하여 양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먹고 싶은 본성과 예의를 지키어 한다는 위를 구별하여 말한다. 여기에서 성과 위(偽)의 구분이 확인되는데 성은 악한 것, 위는 선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무릇 선이란 도(德)를 띠고 평화적인 것을 말하고, 악이란 한 편으로 벗어나서 난폭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인성이 선하면 성왕이 왜 필요하고 예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성을 악하다고 하면서, 성왕과 예의가 성악에서 선화(善化)하는 위임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예와 성인의 법, 즉 외재적 교화를 중시하고 자 했음도 나타낸다.

순자가 맹자를 비판하면서 주장하려는 성이 무엇인지를 정리해보면 첫째, 타고난 본성과 인위가 조공이라도 있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질박(구미대 없이 수수함)한데서 떠나므로 악하다는 주장이다.

셋째, 성이 선하다면 인이나 예의가 필요 없고 성왕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즉 악의 성왕의 도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성이 악으로 규정되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여기서 순자의 관점은 인간은 선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시대적 상황에서 성악을 주장
순자는 맹자에 비해 조금 후대인 전국시대 말기의 혼란이 극에 달하는 시기의 사상가이다. 오랫동안의 전쟁에 의한 참담함과 그 시대의 현실을 직시하여 천(天)의 개념을 이전의 천개념-하늘의 의지에 따른 인간·사회와의 변화-를 부정하고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즉 하늘에는 일정한 자연법칙이 있으나 하늘이 인간의 길·흉을 관장할 수는 없으며 그것은 단지 인간의 잘못으로 나뉘는 것이다. 이 말은 인간의 자기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타락한 그 시대에 인간의 본성이 착하고 그것을 회복하면 편다는 주장은 너무나 풀만 같은 허황한 것으로 보여지질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면 끝없는 투쟁이 되풀이되는 이러한 현실이 오랫동안 계속될 수 있겠는가라고 회의하여 인간의 본성은 악하며 그러한 본성을 선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한 현실을 선덕(善德)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성인의 인위적 노력에 의한 교육인 예이다. 그러므로 예를 강조하여 완전한 도덕성을 의미하는 성인의 경계로의 수양을 주장한 것이다.

3) 성악의 의미
순자의 성악설을 정악설(情惡說)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는 정(情)을 성(性)의 본질로 보고 목(欲)을 정(情)의 지향으로 보는 주장이다. 생리적 욕구본능의 자연스런 유로(流路)는 인간들이 규정된 가치질서에 부합하지 어렵다. 즉 필연적으로 악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의 경향에서 선의 경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교정의 틀로서 예(禮)를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그러한 성악설은 조금 상이한 주장도 있다. 즉 성악설에서의 성은 성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성이 저절로 혼란한 사회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악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관장하여 악과 규정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III. 결론
이로써 맹자와 순자에서의 성을 고찰해 보았고 그들이 성을 인간의 가치판단의 기준인 선과 악으로 나누어 보아, 그것이 그들의 사상적 기반이 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맹·순 양자의 궁극목적은 인간이 수양함으로써 군자 혹은 성인으로 향할에 있다 하겠다.

맹자는 성선에 근거를 두어 착한 것을 회복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그 본심을 찾도록 하는 교육을 중시했고 순자는 성을 강조하여 사회적 질서와 본래적인 것에서 개혁을 중시하여, 즉 변화의 사상을 강조하며 천(天)과 통통한 지위에서 인간을 격상시켰다. 그래서 악을 말하고 개선할 대상으로 보여 성을 악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성에 대한 시각과 관점의 차이에 따라, 맹자는 심(心)과 성(性)의 관계를 본래적 선의 관계로 보아서 유가의 전통을 지킨 것이고, 순자는 이단이라 할 수도 있으나, 유가에서의 궁극목적은 자기를 수양하는데 있으므로, 맹·순 모두 그 추구한 목표는 같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후대에도 맹자 못지않게 순자의 사상이 큰 영향을 끼친 것이라 여겨진다.

흔히들 공자의 사상을 인(仁)의 사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의 계승에 있어서 맹자는 구방심(求放心)의 자세로 내심(內心)의 의(義)를 주로 하여 공자의 전통을 이었다고 볼 수 있고, 순자는 외재적 수양, 즉 위(偽), 직(積), 습(習)으로써 사회질서인 예(禮)를 강조하여 공자 사상의 충실한 계승자가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여기서 지금의 우리는 성선과 성악의 구분에 몰두하기보다는 왜 인간을 스스로의 가치기준인 선과 악으로 나누었는가를 생각해 보고, 그러한 구분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선·악의 구분을 짓게 한 원인이 바로 그들의 궁극목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제33회 동대협출상 수상작

사회과학부문 본상 수상작

지방자치제 잘 되고 있는가

1. 서론

6·27지방 선거 이후 한국에서 본격적인 의미의 자치시대가 개막되었다. 이제 지역주민, 지역기업, 지방정부는 세계 무대에 진출하여 다른 나라의 지역주민, 지역기업, 지방정부와 직접 교류해야 하고, 또한 자연과 인류가 지구상에서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활동하자'(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상당히 적실성있는 모토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사는 과도하게 집중된 정치권력의 빈번한 간섭과 관여, '잘살아 보세'류의 경제효율화 논리, 발전시대의 안보논리 등에 의해 왜곡되고 왜곡되어, 그리고 단절적인 불협화역사였기에 지방자치시대의 미래는 결코 낙관적인 기대만을 가질 수는 없다.

지난 6공화국회의 지방의회가 부여주듯이 지방자치의 '불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불뿌리 보수주의', '불뿌리 토호주의'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소용돌이의 정치'(politics of vortex)로 불릴 정도로 오랜 정치권력의 중앙집중성에 의해 지배되었던 것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의 결과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대안제기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세력간의 권의 관계의 구체적 실천에 따라 그 내용과 방향이 180도로 달라지는 '양날의 칼'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승만 정권부터 현 문민정부까지 실시되었던 지방자치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평가를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의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제Ⅱ장에서는 한국지방자치의 변천과정과 운영과정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이승만정권때부터 1995년 6·27 지방선거까지의 한국지방자치의 현황에 대한 고찰을 했다. 제Ⅳ장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방안과 자치시대에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갈등의 해소방안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한국지방자치사

1. 지방자치의 발기(1949-61년)

제1·2공화국회의 지방자치제 1949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서울특별시, 도, 시, 읍, 면, 의 다섯가지로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당해 시·읍·면의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읍·면의회의는 시·읍·면장에 대한 불신임결정을 부여하고 시·읍·면장에게는 시·읍·면의회의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임기 1년의 명예직 의원으로 구성하였다.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5개월 만인 1949년 12월, 지방자치법 제1차 개정이었다. 이 1차 개정에서는 지방의회를 구성할때까지 의회기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과 시·읍·면장의 선임에 관한 경과규정을 부칙에 신설하였다. 또한 정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를 연기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지방의회를 구성을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계속되는 국내 치안의 불안과 6·25전쟁의 발발로 연기되어온 지방의회원 선거는 195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에서 돌연히 현강 이남 지역에 지방의

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월25일에는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가, 그리고 5월10일에는 도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치안이 불안정하였던 지리산 일부 지역과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도를 제외한 한강 이남 지역에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지방 자치가 비로소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1952년 이후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56년 2월30일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제2차 개정안은 시·읍·면장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고, 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지방의원과 시·읍·면장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의회의결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거부권을 규정하였다. 지방의회에서 간접 선출되는 시·읍·면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바꾼 것은 간선제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956년 제3차 개정에서는 도의회의원의 정원 설정기준을 민의회의원의 배수로 하기로 규정하였던 이전의 규정을 인위적으로 산출하기로 바꾸는 등 정원 설정과 선거구분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1958년 12월26일의 제4차 개정에서는 시·읍·면장 직선제를 다시 임명제로 바꾸고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제를 채택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이른바 2·4·4동으로 불리는 정치적 파동을 통해 국가보안법과 함께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는 선진국의 신중양립정책 경향을 명분으로 하여 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게 되었다. 그러나 시·읍·면장의 직선제를 채택한 지 2년만에, 당산자의 임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직선제의 폐단을 이유로 다시 임명제로 바꾸게 된 배경에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1960년 3·15부정선거)에 대비하여 시·읍·면장을 여당 인물이 임명하기 위한 음모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4·19혁명 뒤인 1960년 11월1일 민주정부에 의해 추진된 제5차 개정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지사, 시·읍·면장, 동·리·동장의 선임방식을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고 그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지방의회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제도를 부칙하고, 서울특별시, 도지사, 시·읍·면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내무장관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시·읍·면장이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도지사가 시·읍·면장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2. 지방자치의 휴지기(1961~79년)

군사정권 및 제3·4공화국회의 지방자치제 1952년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시작된 제1기 지방자치제는 약9년 동안 시행된 뒤 1961년 5·16군부대타로 중단되었다. 4·19혁명 이후 민주주의의 물결 속에서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계층의 지방자치단체장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로 바꾼 제2공화국의 지방자치제는 제대로 된 실험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5·16군사부대타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후 30년간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장기간의 침체기를 맞게 된다.

군사혁명위원회는 5·16군부대타 당일 오후 제4호를 통해 전국의 지방의회를 해산시켰으며 6월6일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제20호)를 통해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 및 인구 15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은 내각이 임명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가 임명토록 하였다. 또한 같은

해 9월1일 법률 제707호로 공포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읍·면 대신 군을 자치단체로, 규정하는 한편, 의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와 도에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그리고 시·군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자주재정권 이외의 모든 지방자치 기능이 중단되고 말았다.

한편 1962년에 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장에서 절로 축소시킨 이외에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은 크게 변경시키지 않았다. 단지 지방의회의 구성시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방법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고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지 않음으로써 지방자치의 실상이 이후 30년간 중단되는 휴지기를 맞게 되었다.

그 후 1972년 12월27일 개정된 제4공화국 헌법은 헌법기관인 지방의회의 구성을 "조국통일이 이루어질때까지 구성하지 않는다"고 부칙규정을 통해 묶어버림으로써 지방자치의 시행을 사실상 중단시켜 버렸다.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상황과 시급한 경제개발을 구실로 한 이와 같은 중앙집권체제의 구축으로 지방의 행정단위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재정주체로서의 기능 이외에는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상실한, 명목상의 자치단체로서만 존재하게 되었다.

3. 지방자치제의 준비기(1980~1990)

제5·6공화국의 지방자치제 독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계속하여 온 박정권도, 그 독자의 세력이 부단히 여러 요인과 내부의 모순에 의해 1979년 10월 무너지고 말았다. 절대권력의 공백과 기기에 따른 일시적인 권력의 혼란은 '서울의 봄'이 도래하게 하였다. '12·12군부대타'와 그 다음해의 '5·18광주민중항쟁'에 의해 제2군인세력의 재등장을 초래했다. 이후 신군부 세력도 기본적으로는 그 지지 기반이 군부 세력도 정권과 별 차이가 없었음을 본바, 결국 정권교체로 실패한 큰 변화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와 관련하여서는 진전이 있었다. 즉 헌법 제8조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이지만, 부칙 제10 조는 개정되었다. 여기에서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한다.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자치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의 가능성을 확대시켰다. 이후 지방자치제 실시의 시기를 둘러싼 논의는 사회전반의 민주화 요구와 관련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어, 드디어 1984년 11월 여·야간의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한 합의가 나오게 되었다. 그 내용은 '1987년 상반기 안에 직접 선거로 실시되는 여·야간의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합의가 나오게 되면, 그 조건이 허용하는대로 점차 그 범위를 확대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그 뒤 1987년 집권당의 노태우 대표는 '6·29선언'을 통해 지방자치의 실시를 천명하게 되고, 이후 확산된 민주화의 물결은 정부로 하여금 지방자치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부칙 제10조가 삭제되어 지방자치 실시의 제요인이 제거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는 여·야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1988년 3월 제12대 국회의 회기말에 지방자치법을 포함한 지방자치

관련 5개 법률에서 야당의원이 결성한 상태에서 여당만으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지방자치법은 7번째 개정이 되었고, 동년 4월6일 법률 제4004호로서 공포되었다. 이 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를, 본법 시행일(1988.5.1)로부터 1년 이내에 할 것을 명문화하였다는 점이다. 아울러 본법 시행과 동시에 임시법이 폐지되어(부칙 제6조), 지방자치법이 27년만에 정상화되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3대 국회에서의 여·야당 역전의 정세를 반영하듯 야당이 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파기되고 말았다. (1989년 5월) 지방자치제 실시를 둘러싼 여·야간의 타협이 난항을 거듭한 후 1989년 12월 여·야간에 겨우 합의가 이루어져 동년 12월30일 법률 제4162호로서 공포되었다. 제8차 개정에 해당하는 이 지방자치법 개정은 '여소야대'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시기를 그 부칙에 규정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 1월에 이루어진 정계 개편에 의한 거대 민자당의 탄생과 함께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실시를 둘러싼 여·야간의 협의가 시작되어, 제9차 지방자치법 개정이 1990년 12월에 이루어졌다.

4. 지방자치제의 실행기(1991~1995)

문민정부의 지방자치제 1991년 봄 30년만에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14대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하는데 부담을 느낀 제6공화국 정부가 1992년 1월 단체장 선거 연기를 발표하여 단체장선거의 법정 기일인 1992년 6월30일을 결코 지켜지 않았다. 이후 1992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거쳐 제정부가 출범한후, 여당 대통령후보의 '95년 단체장 선거 실시'공약에 따라 여·야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즉속, 단체장선거를 포함한 4대 지방선거를 1995년 6월27일 동시에 치를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을 1994년 3월 통과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94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직할시의 명칭을 광역시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연속재임을 3기에 한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근대 정치사에 있어서 대단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지방의회의 구성은 제1공화국회의 지방자치단체장과는 달리, '위로부터'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실시된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도의 중앙집권화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자치기반이 매우 약한 실정이다.

III. 한국의 지방자치 현황에 대한 고찰

1. 집권당의 정권유지수단 50년대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참여에 기초한 불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유당의 정권유지의 도구 내지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지방정치는 완전히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현상을

(표1) 지방자치조직의 이음새

Table with 4 columns: Year, Party, Candidate Type, and Election Result. It tracks the political affiliation of candidates and winners in local elections from 1948 to 1995.

(표 2)

Table with 4 columns: Category, National Party, Local, and Total. It shows the percentage of candidates and winners from national parties, local parties, and independents in local elections.

초래했다. 1949년 7월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었고 국내정세가 불안하고 치안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연되었던 지방자치제가 1952년 전시에 전국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를 개인적인 지지기반으로 삼아 권력연장으로 도모하려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었다.

우선 중요한 정치적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지방자치조직을 이용한 사례를 도시해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2. 중앙집중화된 통치구조

50년대에 단체장 직선까지 하는 상황에서도 지방정부와 권한이양은 거의 없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자치단체에 대한 권한부여에 있어서 극단의 권한이양은 거의 주의를 취하고 있는 까닭에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이 적절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자치단체 내부에 있어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배분배계가 명확하지 못한 까닭에 국가의 감독, 경비의 부담, 지방의회 권한 행사에 있어서 여러가지 모순과 혼란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1961년 5·16군부대타로 정권을 잡은 혁명수도 세력은 부패와 무능을 '혁명적 수단'을 통해 일소하고 민주복지사회의 토대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지방의회를 비롯한 자치적 기능을 정지시키고 지방행정에 있어서 늘들제일주의를 기본방향으로 내걸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에서의 일체의 정치활동과 통치작용, 즉 지방자치는 정지되고 모든 역량은 산업경제·토지개발·농촌개발 등 생산행정 위주로 집중되어 주민자치보다는 단체, 자치 위주의 강력한 피라미드형 행정체제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후 제4공화국에서는 북의 남침 위협이라는 안보적 차원과 경제개발을 통한 조국 근대화라는 행정 늘들치원에서 지방정치는 더욱 소외되고 더욱 강력한 중앙집권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헌법기

관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될때까지'하는 부칙 규정에 묶여 구성이 요원하게 되고 말았다.

3. 자치주의의 결여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과,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방자치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점은 주민들의 민주주의와 자치주의의 부족과 결함현상이다. 민주, 자치주의의 부족현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낸 것이 역시 기초와 광역의회 선거에서의 낮은 투표율과 정치적 무관심이 아닌가 싶다. 50년대 자유당정권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실시되었던 지방자치의 투표율을 살펴보면 중앙선거에서는 투표율이 80%이상 기록되고 있지만 지방선거 특격, 광역단체장의 선거에서는 40%도 못 미치는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4. 지방재정 수준의 취약

지역주민의 자치적분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자치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든 활동과 사업의 근원인 재정자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시 지방재정수준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조건이 충족되었더라도 성공적인 자치제 운영은 어려웠을 것이다.

재정자립도는 총 지방세입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950년대 당시의, 재정자립도는 1953년 35.5%에서 1960년 27.7%로 감소되었다.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원인중의 하나는 지방세가 너무 빈약했다는 것이다.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5. 대표자의 자질과 전문성 부족

과거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낮고 전문화 수준도 낮았다. 50년대에는 (11면에 이어짐)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 잘 담아 구체적 대안 도출에 높은 점수

"지방자치란 무엇인가"(채진욱)를 주제로 한 논문은 지방자치의 개념과 본질을 정치적, 행정기술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서, 논문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 논리전개 또한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잘 되고 있는가"(김시용)라는 음모론은 한국의 지방자치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조명하여 우리의 과제와 전망을 정리한후 나름대로의 발전적 대안을 모색해본 논문이다.

두 논문 모두 형식요건(논문제목, 참고자료, 인용등)은 갖추었으므로 판단된다. 그러나 논제자체가 원론적이고 진부하여 치밀한 학문적 쟁점부각에는 한계를 보이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내용의 깊이를 더하여 교과내 차원의 수준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논문 보다는 두번째 논문이 구체적 대안도출에 성공하였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제 잘되고 있는가"를 본상의 수상대상 논문으로 추천한다.

심 익 섭 (사회과학대 행정학과 교수)

테마의 진지성 돋보이는 수작 각주사용 등 기술적 문제 보완필요

임현철군의 "미학의 재정립을 위한 시론"은 그 테마의 진지성과 풍부한 지적 상상력을 볼때 2학년 학생으로는 보기 드문 수작이다. 많은 난해한 문헌의 섭렵 또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주제의 참신성과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급학년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참고 문헌을 미숙하고 불충분하게 소개하고 있는 점이 여기저기 눈에 띄고 또한 논문형식으로는 답을 수 없는 큰 주제를 일거에 해명하려는 과욕으로 인해 논증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타자비판이 선언적으로 흐르는 점이 아쉽다.

기술적인 문제로는 논문에서 각주를 사용하는 목적과 용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인용 방법의 미숙성이 눈에 띈다. 이는 학문적으로 미숙숙한 저학년 논자 자신의 이익을-극복할 수 없는 문제와 학문적 훈련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런 근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논문의 문제의식과 뛰어난 점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장려하고 앞으로 미숙한 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학습의욕을 진작하기 위해 이 논문을 가작으로 선정한다.

황 태 연 (사회과학대 정치과 교수)

환경문제 시의적절하게 다뤄 논문형식 일관성등 미흡

"국제환경협약과 한국경제의 대응방안"(최창환)이라는 주제의 논문은 지구환경 문제의 대두 배경과 이에 따른 국제환경협약과 그것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개념에 대한 설명 후 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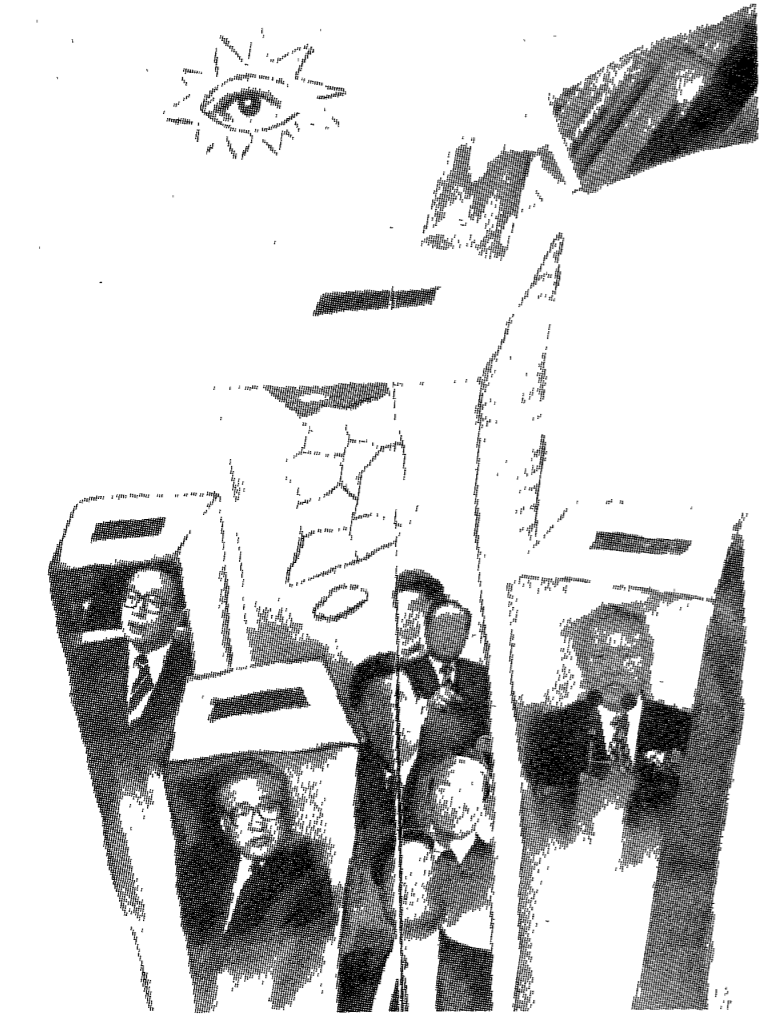
본 논문은 현재의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에 따라 환경과 무역에 관한 논의가 정부, 기업, 전문가들 사이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주제의 선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으며 또한 주제와 관련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비전문가가 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싶다.

그러나 본 논문의 체제를 볼 때, 저자가 본 주제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또한 내용의 일관성이 결여되어있으며, 체제의 미숙함도 두드러졌다. 그리하여 아쉽지만 일선에 넣기는 어려웠다.

김 일 중 (경상대 무역학과 교수)



제33회 동대합설상 수상작



◇6·27선거로 지방자치시대는 개막되었지만, 분권화와 주민자치가 완성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요원하다 한다.

(10명에서 이어짐) 서울시장과 도시사의 학력분포가 고졸이 4명, 전문대 졸업이 3명, 대학 이상 졸업이 2명으로 고학력이 전체의 90%를 넘었다. 그러나 하위단체로 내려 갈수록 이러한 경향이 줄고 있다. 시장의 경우 중졸 이하가 57%로 절반이 넘고, 고졸 이하는 76%로 대부분 고졸이하였다. 읍장의 경우 소학교졸 이하가 48.8%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며 중졸 이하는 88.1%로 대부분이 중졸 이하로 나타났다. 면장의 경우는 중졸 이하가 91.3%를 차지해 대부분이 중졸 또는 소학교졸로 나타났다. 전문대졸 이상은 불과 5.5%에 불과하였다.

자치단체장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농업과 무직의 비율이 각각 41.4%와 38.1%를 기록하고 있으며, 합치면 79.5%가 농업 및 무직자이다. 특히 서울시장 및 도시사와 시장의 경우 농업의 비율이 매우 낮지만 읍장과 면장의 경우 각각 65%와 88.5%를 기록하고 있어 농촌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때 단체장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전체 국민의 평균학력 수준이 매우 높고, 언론의 활성화로 국민의 자치의식은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나, 주로 재력이 있는 사람과 지역 상공업자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영향력적인 인사로, 보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어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기 어려울 실정이다.

6. 정당 및 비정부 조직의 역할과 관여 자유당 시절, 집권정당을 위해 지방의회를 동원하였기 때문에 지방정치는 그야말로 중앙정치의 연장이었다. 지방의회의 활동과 단체장의 주요 관심은 지역개발이나 주민의 복지 향상이 아니었고 중앙의 지시나 명령이었기에 중앙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었다. 정당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선거시 동원할 물론 단체장의 업무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관관계, 정실인사 정책과 같은 일상업무 처리에서부터 당직보유 강요, 특정사안의 의결에 대한 거부 압력 등에 이르기까지 정당이 관여한 경우는 다양하다. 이와같은 정당의 관여는 자연히 지방의회의 단체장간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

IV. 한국지방자치의 과제와 전망

1. 개발과 보존의 환경딜레마 지자체가 실시되면 환경분야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소가 생겨날 수 있다. 지역별 소득을 늘리는 데만 신경쓰는 바람에 산림과 생태계의 중요성이 무뎠을까 봐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 하나다. 반면 공해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주장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환경요인의 개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측면이 있다. 선진 외국과의 경우 지자체를 실시하면서 환경문제가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개발을 하더라도 나라 전체의 생태학적인 특성을 심본 고려해 손을 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상황

치라는 새로운 차원이 추가되어 한국의 정치는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인 경쟁관계 내지 상호의존관계가 국가발전이나 정책 추진에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더욱이 지방정치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물론 지역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과거 오랜 전통으로 내려온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문화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운영을 국가발전의 장애물로 여기는 관행을 정착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그릇된 정치문화를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사안일 것이다.

1)분권화 막는 법제의 개편 현행 지방자치법(이하 자치법)에서의 지방자치의 주민자치적 요소가 배제되어 있고 관료자치로 갈 수 있는 제도적 요인이 풍부한 본권 없는 자치, 자치없는 집권이다. 지방자치를 하자는 것은 지방정부가 직접하고 있는 많은 지방정부의 과제를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방행정의 자기치환이 확충됨으로 인하여 더 효율적으로 더 능률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중앙정부가 꼭 관장해야 하는 그런 권한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입법, 조약, 행정, 재정, 각 분야에서 명실 상부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때 진정한 자치체의 시기가 가능하다.

둘째, 과거 역사속에서 왜곡된 사회구조가 지역주민들의 피해의식을 낳아 줬다. 둘째, 종래의 중앙정부의 정책 우선 위주였기에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빈약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간 이해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광역권 행정협의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실제론 문제해결을 위한 권한과 지지 기반을 갖지 못했다. 넷째,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의 수행을 게을리하고 있고, 지방의원들도 지역의 지도자라는 책임의식을 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쩌면 극단적 지역이주의는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다양한 형태의 이기적 집단행동은 본래의 해결보다는 사태를 악화시켜 결과적으로는 국가 공동체적의 상실, 나아가 공동체적의 마비현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V. 결론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권력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분권화를 통해 지방자치체의 본질적인 요소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지방정부나 자기치환주민들의 요구에 민중에게 반응하여 실용성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작고 효율적인 행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자치사는 권력의 과도한 중앙집중으로 인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의 실현을 이루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흘러왔다. 이와같이 오랜 기간 동안 독재와 전횡으로 정화되어온 한국정치사의 경우에는 특히 중앙정부에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 단체에 분산 한다는 '분권화'와 지역주민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주민자치'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며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진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627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은 한국 정치발전에 일대 전환기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들 극복하는 데안으로서는 한국 지방자치의 미래는 지속적인 지방의 자율성확대와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와 생활환경개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실질적 분권화를 막는 행정·입법·조직·인사권의 제약을 철폐해야 한다. 둘째, 중앙집권체제에서 중앙이 거의 독신했던 관료 조세체제에 대해 주민이 낸 세금을 중앙과 지방이 공평하게 나누는 조세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실시의 요체는 자주재정의 확보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협수관계에 있는 까닭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개발은 지방자치실시를 위한 기본적 명제임이 틀림없으나 그 개발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저해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인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어야 한다.

넷째, 6·27지방선거 선거 이후에 불거진 지역이주의에 대한 갈등들은 과거 중앙집권화 시대의 왜곡된 사회구조에서의 피해의식과 중앙정부의 정책위주로 지방행정이 실현했던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그러므로 진정한 분권화가 실현되고 갈수록 '민주사회'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기에 행정협의체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와 지방의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분권정부를 위해 시·도지사 협의기구 같은 상설기구도 만들 필요가 있다.

2)지방정부에 대한 권한과 기능의 적정한 배분 기능 배분의 원칙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의 생활에 직접 관련된 업무를 주민이 거주하는 가장 가까운 정부에서 종합적인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2)지방정부에 대한 권한과 기능의 적정한 배분

사회과학부분 수상소감



김시용 (사과대 정외과)

“지방자치는 당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비판을 먹고 산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선다”라는 말을 나는 좋아한다. 의사대사의 말씀이다. 실제 그 뜻은 정확치 않지만 서있는 그자리,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새기고 산다. 이는 내 스스로 현실의 어려움에 무릎 꿇지 않기위해, 그리고 현실에서 벗어난 유토피아로 도피하지 않기위해 되뇌이는 ‘화두’이다. “지방자치”는 내 현실의 ‘화두’였던 셈이다. 6·27지방선거이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로서의 ‘분권화’와 ‘주민자치’는 요원하기만 하다. 반공과 경제효율화 논리에 의해 무리하게 강행된 중앙집권화에 그 원인이 있다. 건전한 People's Century를 맞이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 단체에 분산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당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는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비판을 먹고살기 때문이다. 앞으로 버릴꺼리는 나를 끝까지 오롯이 서있게 해준 진옥, 기동이 되어준 탁용, 경진, 동인, 일권형, 그리고 어려움속에서도 글썽 줄 모르는 모든 정의인들과 유망 진지도교수님, 정치적 연구실선배님들, 사랑하는 연구실 후배들, 그리고 묵묵히 힘이 되어준 용란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96년에 모든 동국인들의 가슴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연과학부분 심사평

연구주제의 창의성과

실용적 측면 두드러진 ‘나팔꽃...’추천

논문 ‘나팔꽃과 고무마의 점액제에 대한 연구와 그 이용성의 개발’과 ‘식물생장에 관여하는 균근의 역할에 대한 연구’ 두 논문 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연구라고 생각되었다. 그 중에서도 ‘나팔꽃...’은 연구 과정이 참신하고 창의적이고, 아파트의 버려진 정원에 이용될 수 있는 실용성을 강조 하면서도 순간 접목을 시도한 학구적인 면도 있어 논문을 본상에 추천하였다. 몇종류의 점액 방법을 1, 2차 시도하여 조개껍질의 적당함을 판단하여 조개껍질로 마지막 실험을 시행 하므로, 이들 순간 접목을 성공 시켰다는데 첫번째 의의가 있다. 접목한 결과 고무마의 수확면에서는 무접목 제보다 떨어지지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고무마 수확량저하는 제배방법의 미숙도 한 원인일것기므로 계속 연구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진으로 제시된 바 있었으나, 접목과 무접목 제배된 나팔꽃에 대한 데이터가 첨가되지 않은것이 못내 아쉽다. 균근에 관한 논문은 종에 따른 적당한 균근의 종류도 유명하고 균근의 감염도 따른 영향을 연구하는것이 목적으로 실험실계 기술도 좋았다. 균근이 감염된 식물체로 균근의 영향을 관찰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감염식물체가 몇 되지않아 실험결과와 효과를 감소 시킨것이 아쉽다. 논문이나 서술방법 표, 그림의 설명등에 대한 지문을 받았으면 더좋은 논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김혜영(생명자원과학대 응용생물학과교수)

자연과학부분 수상소감

“논문준비로 보냈던 시간들... 대학생활의 잊지 못할 기억 남을 것”



전흥도 성세라 서준혁 마성진 (생자대 응생과)

추억의 한장으로 서서히 저물어 가는 95년도의 그트머리에 수상소식이 들려왔다. 논문을 준비하느라 부산을 떠날 것이 어찌할 갈래도 막상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고 보니, 기쁨이 앞선다. 아울러 응용생물학과 소모임인 ‘금강초등학교’의 첫 졸업생인 박광영선배님이 학술상 본상을 수상한 데 이어 ‘금강초등학교’의 무병재 졸업생이 될 우리가 또다시 학술상 본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고 큰 의미로 다가온다.

실험에 착수하여 실험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들, 필요한 자료를 찾기위해 분주하게 도서관 구석구석을 뒤지던 순간, 밤을 새워가면서 몰두했던 정리작업 그리고... 이러한 과정속에서 학문적으로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학생활의 잊지 못할 기억으로 가슴속에 자리잡을 것이다. 지난 4년간의 대학생활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순간, 더욱 더 정진하라는 의미로 알고 상을 주신 심사위원님,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옆에서 응원해 준 ‘금강초등학교’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연과학부문 본상 수상작

나팔꽃과 고구마의 접목재배에 대한 연구와 그 이용성의 개발

제33회 동대합설상 수상작

1. 서론

우리나라는 과수 및 과채류 재배에 있어서 식물 근연종의 친화성을 바탕으로 한 접목재배가 이미 보편화되었다. 과수 접목재배는 훨씬 오래되었고 채소류에 있어서 특히 박과 채소의 경우는 약 80년 전(1927년) 일본의 일석항서랑(立石恒西郎)씨에 의해서 수박만항병 방지를 위해 접목재배가 된 후 연작의 해와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 대목을 이용함으로써 연작과 병해충으로부터 우수한 농산물을 다수확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접목은 주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주작물의 열매나 꽃을 수확하기 위한 즉, 2종의 식물을 접목하여 그 중 이용하고자 하는 하나의 식물을 위하여 또 다른 종류의 식물은 그 보조적 역할로써만 존재하고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동일포장에서 필요한 2종류의 작물을 동시에 수확하고자 하는 접목재배가 시도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고갈되어가는 에너지 자원 및 식량확보를 위한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꾀하고 노동력을 성력화함으로써 비용의 절감과 보다 쉽게 많은 수확물을 확보하고자 하는 인간의 무한한 가치창조의 발로에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무와 배추를 접목 재배한 새로운 형태의 식물인 '무추'(양진수, 1993), 토마토와 감자를 동시에 수확하는 '포메이토'(나상욱, 1994)를 개발, 실용화시키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그렇다면, 관상용 꽃과 식용의 산물을 동시에 수확하는 새로운 식물의 개발은 어떨까?

여기에 착안, 우리는 메꽃과의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하는 나팔꽃과 최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고구마의 접목재배를 실험하고 그 접목재배방법 및 이용성을 연구하면서 우선 주제가 흥미롭고 무추와 포메이토 등의 경제적 실용화 방안이 모호한 것과는 달리 도시 가정원예로서의 개발 가능성과 학생들의 자연연구의 좋은 학습자료가 될 것 같아 실험에 착수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본 실험은 1995년 2월 5일부터 1995년 9월 17일까지 실시하였다.

1. 대목(臺木)과 접수(接穗)의 관리

1) 고구마(Ipomoea batatas LAM.) 고구마는 가정에서 겨울동안 물그릇에 담아 거실이나 방에 두어 썩을 관상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도시 가정원예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같은 방법을 선택, 1995년 2월 5일 건조한 고구마를 구입하여 용기에 담아 물을 붓고 거실에서 썩을 띄워 순저장을 유도하였다. 고구마 썩이 자라 25~35cm가 되었을 때 채도하여 jippy pot(지름 6cm)과 10X10cm 간격으로 45X60cm의 플라스틱 박스에 삽목(挿木), 뿌리내림과 새순이 자라남을 유도하였다.

산토는 발효와 낙엽 썩은 퇴비를 2:1로 섞어 제조 사용하였다. 온도는 22~26°C로 관리하고 관수는 매일 조금씩 하였다.

2) 나팔꽃(Pharbitis nil CHOSIS.)

나팔꽃은 3월 22일 고구마가 뿌리를 내리고 새순이 2~3cm 전개되었을 때 시판용 대들종 나팔꽃을 정종, 흙을 피운 후 25X25cm 플라스틱 박스에 3X3cm로 정뿌림하였다. (이후 접목 4일전 2회 파종)

2. 접목

3월 25일 1차로 오이 재배에서 주로 사용하는 호접과 수박에서 사용하는 삽접을 각각 15본씩 실시하였다.

4월 8일 다시 삽접한 고구마에 2차 접목을 호접과 삽접 그리고 과수에서 이용하는 조개접을 각 10본씩 30본을 실시하였다. 3차 접목은 조개접을 4월 22일~23일 50본을 실시하여 접목 방법간에 접목의 용이성, 성공률 등을 조사하였다. (표 1)

대목인 고구마를 한 마디정도 분고 나오는 측지(制枝) 중 가장 좋은 것에 접을 한 후 다른 측지는 모두 제거, 활착이 늦어짐을 방지하였다.

1) 호접(接) 방법

새로운 고구마 순의 부드럽고 공동이 형성되지 않은 부분을 편도칼로 절기의 1/2이상을 45각도로 비스듬히 위에서 아래로 절개하였다. 나팔꽃은 고구마의 절기 길이를 고려하여 나팔꽃 절기를 밑에서 위로 절개하여 고구마의 절개된 부분에 끼워 클립으로 고정하였다. 이때 고구마의 생장점과 측지는 방지하였다.

2) 삽접(插接)

이 방법은 주로 수박에 이용되고 있는데 3~4cm정도로 자란 나팔꽃의 배축을 1cm내외로 잘라 꽃기 줄기 뾰족하게 깎아 준비하여 고구마 순의 윗부분을 자른 후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45각도로 1cm내외의 깊이로 구멍을 내 그곳에 나팔꽃 순을 꽂고 고구마의 측지를 제거하였다.

3) 조개접

조개접은 과수에 많이 이용하는 접목방법으로 우선 고구마순을 잘라 중앙을 1cm 길이로 조깅 후 나팔꽃을 삽접에서와 같이 잘라 양면을 깎고 대목의 가장자리 쪽으로 부름겨를 맞대어 꽂고 클립으로 고정하였다.

3. 접목 후 일반관리

접목이 끝나면 3~4일간은 물주기가 어려우므로 육묘상자 바닥에 물을 흠뻑주고 육묘상에 활대를 꽂아 비닐을 씌우고 밑패하여 수분의 증발을 막았다.

온도는 25~30°C를 맞추고 신문지 등을 덮어 차광하여 나팔꽃이 쉽게 마르는 것을 막았다. 비닐을 밑패하게 되므로 비닐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 접목 부위에 떨어지면 접목부위가 부패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였다.

접목 3일 후 밑패된 비닐을 낮추는 환기를 시키고 잎 표면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주 물을 살포해 주었다. 접목 10일 후 클립을 제거하였다. 이때부터 온도와 일조의 영향에 따라서 줄기가 웃자라게 될 수 있으므로 햇빛이 하루 종일 들리는 유리 온실에서 옮겨 낮 온도는 25°C내외와 야간온도는 10~15°C를 유지하였다.

접목 3일 후 밑패된 비닐을 낮추는 환기를 시키고 잎 표면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주 물을 살포해 주었다. 접목 10일 후 클립을 제거하였다. 이때부터 온도와 일조의 영향에 따라서 줄기가 웃자라게 될 수 있으므로 햇빛이 하루 종일 들리는 유리 온실에서 옮겨 낮 온도는 25°C내외와 야간온도는 10~15°C를 유지하였다.

4. 정식(定植)

접목에 성공한 나팔꽃의 본엽이 3~4매 시인 4월 23일 페비닐봉지(마대, 비료포대)와 화단에 각각 10, 8본을 1차로 정식하고 5월 11일 페비닐 봉지에 5본, 화단 7본, 노지에 30본을 2차 정식하였으며, 대조구로 무접목 고구마를 역시 페비닐봉지, 화단, 노지에 각각 15, 15, 30본 정식하였다. (표 2)

1) 페비닐봉지 재배

도시에서의 화분을 제외한 가정원예를 하기란 넓은 뜰이 없는 한 어렵다. 따라서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고구마와 나팔꽃의 접목재배에 의한 도시 가정원예로의 개발이 주었으므로 연작의 해가 없고 페비닐봉지를 이용함으로써 자원 재활용면에서도 유일한 페비닐봉지 재배를 실시하였다.

2) 용기 제작방법

우선 페비닐 봉지를 구하고 논흙과 발효 그리고 퇴비를 각각 1:1:1로 잘섞고 약간의 분자용 마사와 토양미 물리성 개량을 위해 낙시용 지렁이 1통을 분배 혼합, 용토를 만든 다음 포대(지름 40cm, 높이 40cm 이상)에 담아 필요한 장소로 옮기고 물을 관수하였다.

3) 화단, 노지재배의 정식

화단과 노지재배는 기존의 용토에 따라 거름을 평당 N-P-K를 3-15-50g 넣고 퇴비를 3kg정도 넣어 잘 경운하였다. 표준 시비량은 10a당 퇴비 1천kg, N-P-K는 5.5-6.6-15.6kg 이므로 토양 비옥도에 따라 가감한다(정 등, 1987). 이때 노지는 50X60cm로 이랑을 만들고 주간 거리를 30cm정도로 정제한 후 물을 흠뻑 주고 2일정도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5. 정식 후 일반관리

정식 후 관리는 초기에 3일마다 관수하고 외기온이 30°C 이상 오르기 시작하고부터 2일마다 관수했다.

주비는 식물영양제를 열면살포하였는데 1차는 정식 20일 후 시판용 4종 복합비료를 1백배액으로 희석살포하고 2차는 8월 15일 본격적으로 개화를 시작할 때 시판용 질산칼륨을 1백배로 희석하여 열면살포하고 뿌리주위에 50배로 묽게 관수하였다. 그리고 바르케영양제(주)에서 농자

(표 1) Rates of the grafting according to grafting methods.

Table with 5 columns: Grafting method, In-grafting, Insertion grafting, Graft grafting, Notes. Rows include First (3/25), 2nd (4/8), 3rd (4/22-23).

(표 2) Numbers of planting according to methods of cultivation

Table with 4 columns: Culturing method, Planting time (4/23, 5/11), Total, The withered number of morning glory after planting. Rows include Non-grafting and Grafting in different environments.

(표 3) Weights of sweet potato after cultivation according to culturing methods.

Table with 7 columns: Culturing method, The period of cultivation (First, 2nd), Per plant (Number, Weight), g/EA, kg/plant, Numeric index. Rows include Non-grafting and Grafting in different environments.

재)를 상태를 보이며 수시로 열면살포 하였다. 병충해 관리는 정식 후 1회 진드기와 응애 방제를 위해 코니도 수화제를 살포, 방제하였다.

화단 후부터 추축하던 고구마와 나팔꽃의 측지 발생이 많아지는데 양면결합을 피하고 나팔꽃으로의 양분유도를 위해 고구마의 측지는 제거하였으나 수확 30일 전부터는 고구마의 수량을 늘리기 위해 측지를 방임하였다.

수확은 9월 17일 실시하여 재배방법별 고구마의 수량을 조사하였다. (표 3) 중자 수량조사에서 정식 후 나팔꽃이 죽은 포기는 고구마 대조구 수량에 포함되었다.

III. 결과 및 고찰

1. 접목방법에 따른 접목 성공률과 용이성 비교

접목은 3차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1차 접목시 호접은 13.3%, 삽접은 20%의 성공률을 보였다. 2차 접목시 조개접을 추가 실시하였던 바 조개접이 가장 용이하고 성공률이 높아 3차에서는 모두 조개접으로 실시하여 84%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표 1)

접목의 방법별 성공률에 있어서 호접보다는 삽접이 훨씬 용이하고 성공률도 높았는데 이로 보아 고구마 대목의 마디 사이가 길고 연약한 육부는 접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바(호접시)는 대목이 마디 사이가 길어야 접목이 유리할) 도시 가정원예로서의 활용에 있어서는 페비닐봉지를 이용함으로써 자원 재활용면에서도 유일한 페비닐봉지 재배를 실시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접의 용이성과 성공률에 있어서 삽접 방법간에 차이가 많이 났다. 우선 호접의 경우 나팔꽃의 배축과 고구마의 줄기두께가 너무 많이 차이나고 나팔꽃이 물러지기 쉬워 접목이 어렵고 또한 성공률도 매우 낮았다.

삽접의 경우는 접목의 용이성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접목후 생장이 있어서 줄기가 터지고 공동(空洞)이 형성되면서 고사율이 높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조개접은 접목이 용이한 물문 활착과 후기 생육에 있어 다른 방법보다 뛰어난 것 같고 대목 하부에 나팔꽃의 접수를 대목의 양쪽 가장자리에 꽂아 2본을 동시에 접목, 활착 후 그대로 생장시키든지 그 중 좋은 순만 남기고 한쪽은 잘라 건강한 묘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접목방법에 있어 고구마의 순골에서 1~2cm에 접목을 실시하고 나팔꽃도 배축의 중앙부위보다는 옆의 비로 밑이나 뿌리 바로 윗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좋았다. 이는 고구마와 나팔꽃 모두 시기가 조금 늦어지면 공동이 생겨 활착이 매우 불량해지기 때문이다.

2. 정식 후 일반관리에 대한 검토

정식은 2차에 걸쳐서 실시되었는데(표 2) 정식 시 고구마의 뿌리에 상처가 나거나 끊어지게 되면 잔뿌리의 발생률이 많아져 과근 비대가 불량해 질 수 있으므로 잘라서 정식에 임했다. 정식 후 병충해 관리는 예방 위주로 실시하고 연약한 새순이 전개될 시 응애와 진드기에 의한 피해와 흰가루병, 그리고 나팔꽃 잎에 갈색 반

점 형성되어 진행되면 황변하여 낙엽하는 반저병 등의 예방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페비닐 용기로 마대를 사용할 경우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비료포대를 사용할 경우 물빠짐과 통기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용기의 밑과 중간 등에 구멍을 뚫어 통기성을 좋게 하였다. 재배관리에 있어서는 페비닐용기의 경우 잦은 관수 등으로 양분의 유실이 빠르므로 추비 위주로 관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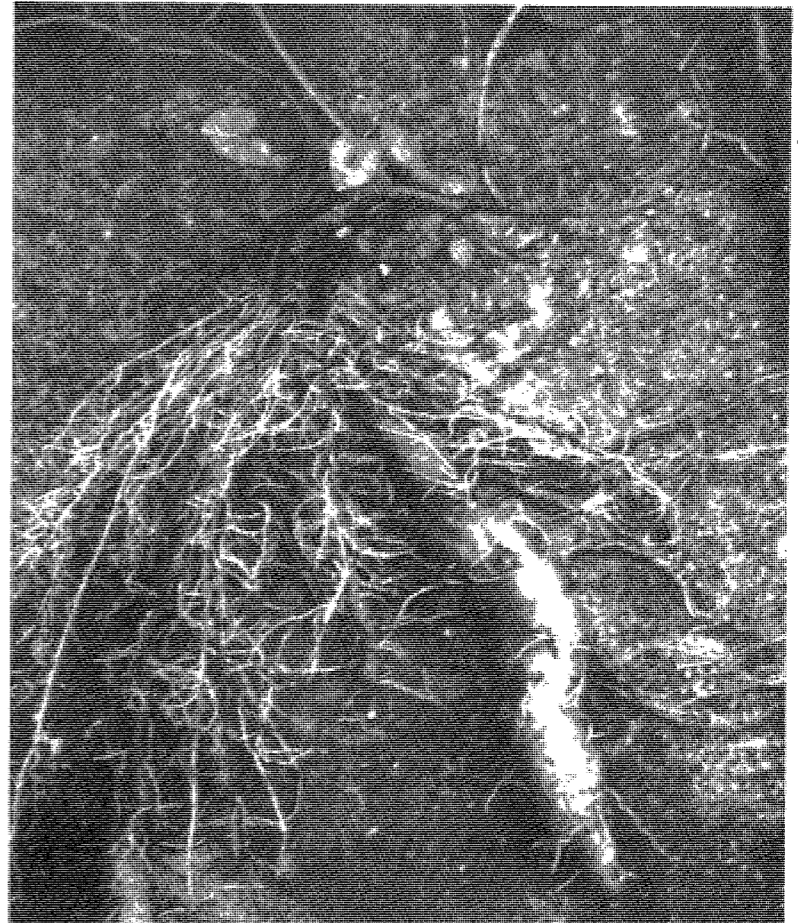
3. 재배방법에 따른 수확 및 개화 비교

고구마의 수확은 노지의 경우 대조구와 접목재배포장을 동시에 9월 10일 추석날 오후 실시하였고 화단과 페비닐용기 재배는 9월 17일 실시하였고 재배 방법별 수량은 (표 3)과 같다.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접목재배의 경우 대조구와 일반 노지재배 평균(직물시령장, 1977)에 비하여 접목재배의 경우 페비닐봉지, 화단, 노지에서 저조한 수량을 보였다는데 이는 접목한 친화도에 있어서 불화합성의 여러가지 증세중 일부의 영향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접수자 대목에 주는 영양의 여러가지 예중 영양생장의 차이에 의한 것이 있는데 추세가 왕성한 접수를 약한 품종의 대목에 접을 하면 대목은 원래 기적된 것보다 더 왕성한 발육을 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접수의 추세가 열적적으로 약한 것인경 강건한 대목까지 그 작용을 받아서 더 약화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한다. 가령, 풀 종류의 접목을 예로 들면, 수형이 작아진것지, 성장률이 변화가 온다든지 하는 것은 대목보다도 오히려 접수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임정민, 1965) 따라서 본 실험의 결과 접수인 나팔꽃의 하부는 연필끝기 이상으로 굵어졌고 초새도 매우 왕성하였으며 개화결실도 빨랐다. 그러나 대목인 고구마의 덩이뿌리의 발육은 현저히 떨어지고 실뿌리도 무접목 상태의 그것보다 훨씬 많이 발생 하였음을 접수자 대목에 주는 영양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고구마 재배에 있어 질소 성분이 많으면 지상부의 생장은 좋으나 뿌리는 성육이 많고 덩이뿌리의 발육은 저연되는 현상이 있다. 그러므로 접목을 할 때 접수자와 대목이 완전 유착되었다 하더라도 부름겨의 부분적인 결합이 피므로 양묘의 승강이 부자유스러워 탄수화물 등은 지상 부분에 다분히 축적되고 질소 성분은 뿌리에 축적된다는 양분설(시용하, 1970)이 본 실험의 결과 접목묘에 있어서 실뿌리가 많고 덩이뿌리의 수는 극히 적었으며 덩이뿌리의 모양도 가늘고 길게 형성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위의 문제 해결은 접수의 품종에도 차이가 많이 나므로 앞으로 실험을 통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구마 재배에 있어 묘의 소질이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이우영, 1985) 본 실험의 결과 나팔꽃의 개화에는 그 영향을 결정하기는 어려웠으나 고구마 수확량에 있어서 일반노지재배에 못 미치는 이유의 한가지 요인으로 묘의 소질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따라서 충분한 햇빛을 쬐어주고 육묘용 산토제조에 있어서 병충해가 없는 완전 완속비료를 이용하여 무균의 산토를 제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



◇접목재배한 고구마. 뿌리가 길고 잔뿌리가 많으며 대부분 크게 여물지 않았다.

요리라 생각된다. 나팔꽃은 단일성 식물의 대표종이다. 따라서 개화는 하지가 지나고 나서 서서히 낮의 길이가 짧아 지는 7월 중순부터 개화를 시작하는 데 본 실험에서는 페비닐용기에서 첫 꽃의 봉오리가 6월 10일 맺어 줄기의 신장을 위해 1, 2번째 봉오리는 제거하였다. 6월 15일 3번째 봉오리가 첫꽃을 피웠는데 이는 접목을 하면 개화결실이 빨라진다는 학설은 양분설과 기상설 또는 광주율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양분설에 의하면 식물체의 가지나 잎에서 합성된 탄수화물질의 축적량(C가 뿌리에 흡수한 양묘인 질소질 성분 N보다 많은 때 즉, C>N일때 화기가 많이 생성되어 개화결실이 빨라진다는 설이 있다. 특히 접목을 할때 대목이 완전 유착되었다 하더라도 부름겨의 부분적인 결합이 피므로 양묘의 승강이 부자유스러워 탄수화물 등은 지상부분에 다분히 축적되고 질소 성분은 뿌리에 축적되며 C>N원칙에 합치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는 개화결실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용하, 1970)

본 실험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초기에 고구마의 측지를 방임시 나팔꽃의 순 자랄이 현저히 순화, 약화되어짐을 볼 수 있었고 후기 나팔꽃이 3m 정도 자랐을 때 오히려 개화가 촉진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나팔꽃이 완전유착하고부터는 고구마의 영양 생장이 매우 빨라지게 되는데 수형이 갖추어지고 난 후에 고구마 순을 방임했을 때 고구마와 나팔꽃의 양면의 결합에 의한 초새 조절로 개화가 촉진된 것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의 정확한 검증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재배 방법별 개화 형태와 지수를 비교해보면 개화순서는 페비닐용기에서 가장 먼저 개화하고 다음으로 화단, 노지 순서로 개화되며 개화말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페비닐용기에서 가장 많고 8월이 되면서부터 화단재배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노지의 경우 수확시까지도 개화량은 가장 적었다. 이는 양분의 공급에 있어 불리한 용기재배와 화단재배의 경우 줄기가 신장되면서 생리생장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수확후 나팔꽃의 줄기의 무게는 화단재배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용기재배의 경우였으며, 노지재배에서 가장 적은 양이었다.

4. 이용성의 개발

중간 접목의 단계까지는 접목율이 높으나 어떤 조합은 접목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가령, 아몬드와 살구나무는 같은 속내의 나팔꽃의 양분 결합에 의한 초새 조절로 개화가 촉진되는 듯하고 고구마의 뿌리 비대에도 좋은 결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의 정확한 검증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보통 감귤(citrus)의 대목에 사용되고, 접목묘의 왜성화를 가져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지파의 식물에 있어서는 속간 접목이 잘 되고있다.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가 독말줄(Daturastramonum), 담배(Nicotiana Tabacum), 파리(Solanum nigrum) 및 감자(Solanum tuberosum)에 접이 된다. (임정민, 1965)

최근에는 토마토와 감자에 의한 접목이 실용화 단계에 있다는 보고가 있고(나상욱, 1994), 그리고 1994년 일본의 한 고등학생에 의해 감자와 페추니아를 접목, 관상용의 꽃과 식용의 산물을 동시에 수확하는 속간 접목이 성공된 보고가 있다. (농민신문, 1995) 그러나 이런 예는 흔하지 않다.

본 실험에 사용된 고구마(Ipomoea batatas)와 나팔꽃(Pharbitis nil)은 같은 과내의 속이 다른 식물이다. 본 실험이 접목에 성공함으로써 속간 접목의 범위를 확대시켜 놓은 좋은 예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고구마 덩이뿌리의 수량은 적었으나 나팔꽃의 초새와 개화결실량이 실생묘와 맞먹는 만큼 빨리 개화함으로써 관상의 가치는 더욱 높았다.

앞으로 그 실용성의 개발에 있어 도시 가정의 좁은 공간과 한정된 토지에서도 접목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베란다, 건물의 옥상등 가정의 유휴지의 적절한 이용으로 여름 동안 화려한 나팔꽃을 즐기고 가을에는 고구마를 수확하는 기쁨과 함께 할 수 있어 새로운 도시 가정원예로서 가치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더욱이 개화결실에 작용하는 요인의 결과, 대조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화훼류와 과채류의 체중에 있어서는 대목과 접수의 상호 작용을 잘 검토하여 채종의 방법으로도 이용해 볼지하다. 하지만 개화결실에 작용하는 요인의 결과, 대조와 접수 상호간의 영향에 의한 문제 등 계속적으로 연구해 볼 대상을 먼저 준 것 조 좋은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초기에 방임시 나팔꽃의 순자람이 현저히 순화, 약화되어짐을 볼 수 있었고 후기 나팔꽃의 3m정도 자랐을 때 부터는 오히려 개화가 촉진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나팔꽃의 완전유착하고부터는 영양 생장이 매우 빨라지게 되는데 수형이 갖추어지고 난 후에는 고구마 순을 방임했을 때 고구마와 나팔꽃의 양분 결합에 의한 초새 조절로 개화가 촉진되는 듯하고 고구마의 뿌리 비대에도 좋은 결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의 정확한 검증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금년 의학계열 평가 준비 의대·한의대 대책 마련 분주

96년 대학평가의 일환으로 경주 캠퍼스 의학계열 평가를 앞두고 의대와 한의대측은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학부평가위원회와 대학원평가위원회로 나누어져 시행되는 이번 평가를 위해 현재 의학계열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96년도 평가에 대비하고 있다.

대학평가인정제는 본과 대학의 질적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그에 관한 인정을 얻게 하자는 취지로 6개항의 평가인정기준을 제시하였다.

평가기준 6개항으로는 △교육목표 -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설정해야 하며 대학의 교육이념이나 특성이 잘 반영되고 학과 이수자의 수행능력 범위와 그 입수수준을 명료하게 기술해야 한다.

또한 교직원 및 학생들 사이에 충분히 인지되어야 하며 학과는 이를 위해 적절한 홍보와 구현노력을 해야한다. △교육과정 -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의 편성과 개선을 위해 원활히 수행해야 하며 학과 교육목표를 잘 반영하고 전공 및 전공관련 교육에 필요한 과목을 다양하게 설정·운영하고 일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최대한의 교육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학문성적, 학습자의 배경, 교육여건의 수업지도도를 개편하고 교육과정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실험실습 시간의 적절한 배정과 학습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게 시행. △교육과정 -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평면평가를 효율적으로 삼각·지도해

야 하며, 학생의 창의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 및 자치활동의 지원, 각종 장학제도와 복지시설 및 제도를 마련하고 홍보하여 학생들의 안정된 대학생활 지원과 학업의욕 고취, 졸업생이 의사국가고시에 요구하는 자질을 갖추도록 지도하며 임상외의 기초의학 분야 진출도 꾸준히 확보 △교수 - 객관적인 인사관리 제도를 운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우수한 교수를 채용, 충실한 교수활동과 학생지도를 위해 적정수의 전공별 정임교수 확보, 교수들은 우수한 연구업적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수준높은 연구업적을 쌓을 수 있도록 연구기금 확보와 연구장비 조성에 노력, 학과특성을 고려한 연구소를 설치하고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의 지속적 지원과 교수들의 각종 연구기회를 제공 △시설 -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도서관, 컴퓨터시설의 확보와 효율적 유지·관리, 대학병원인 임상실습을 위해 환자진료를 위한 각종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춰야 하며 학생의 교육과 환자진료 그리고 현대 의학연구의 장애제거 △행정·재정 - 조직적인 업무체계를 갖추고, 합리적 절차에 의한 행정의 계획·운영, 학과의 운영과 교육을 위한 적정재정 확보와 합리적 운영 등이다.

이에 의대와 한의대는 평가를 대비해 학교측으로부터 각각 3억과 5억의 지원금을 배부받아 대부분 동아리방과 강의실 냉·난방, 교수연구실 확보 등 공간문제 해결과 전산 네트워크 설치, 기자재와 실험실습실 확보 등

평가기준에 부응하는 결과를 위한 물적투자와 커리큘럼조정, 행정면제 확충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인적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짧은 준비기간과 대책마련 특히 각 주체들의 인식부족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평가를 준비하는 한 관계자는 "실질적인 실적이 따라야 하며, 모든 주체들은 공동책임 가지고 전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밝혔다.

이와 함께, 학생의 창의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 및 자치활동의 지원, 각종 장학제도와 복지시설 및 제도를 마련하고 홍보하여 학생들의 안정된 대학생활 지원과 학업의욕 고취, 졸업생이 의사국가고시에 요구하는 자질을 갖추도록 지도하며 임상외의 기초의학 분야 진출도 꾸준히 확보 △교수 - 객관적인 인사관리 제도를 운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우수한 교수를 채용, 충실한 교수활동과 학생지도를 위해 적정수의 전공별 정임교수 확보, 교수들은 우수한 연구업적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수준높은 연구업적을 쌓을 수 있도록 연구기금 확보와 연구장비 조성에 노력, 학과특성을 고려한 연구소를 설치하고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의 지속적 지원과 교수들의 각종 연구기회를 제공 △시설 -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도서관, 컴퓨터시설의 확보와 효율적 유지·관리, 대학병원인 임상실습을 위해 환자진료를 위한 각종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춰야 하며 학생의 교육과 환자진료 그리고 현대 의학연구의 장애제거 △행정·재정 - 조직적인 업무체계를 갖추고, 합리적 절차에 의한 행정의 계획·운영, 학과의 운영과 교육을 위한 적정재정 확보와 합리적 운영 등이다.

이에 의대와 한의대는 평가를 대비해 학교측으로부터 각각 3억과 5억의 지원금을 배부받아 대부분 동아리방과 강의실 냉·난방, 교수연구실 확보 등 공간문제 해결과 전산 네트워크 설치, 기자재와 실험실습실 확보 등

지역개발 대학원 석사과정 원서마감

지역개발대학원(원장=김병기·국제경제학)의 석사과정 원서가 총 18명 접수로 마감됐다.

이에 지역개발대학원 한 관계자는 "석사과정 원서는 공식적으로 마감되었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더 있을 경우 접수를 더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리자 과정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2월22일까지 60명 내외로 선발한다.

학복위 방중 특강 실시

제11대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박승우·국경3)는 오는 4일부터 방중 특강을 실시한다.

주요특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토의예비과정=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원효관(A307) △System Toxic Reading(김정민=오전 10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원효관(A307)). 이번 학복위 특강은 지난 학기의 5강좌에서 크게 축소되어 2강좌만이 실시된다.

이에 학복위의 한 관계자는 "학우들의 참여조로 인하여 이번 특강은 꼭 필요한 2강좌만을 신설했다"라고 밝혔다.

차기 한의대 학생회 후보 사퇴 재등록 오는 2월로 연기 조짐

한의대 학생회는 제16대 후보자(김용호(본1), 최광용(본1))투표를 지난 22일 실시하고 중앙총회결 개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후보자들의 사퇴로 무산됐다.

김용호·최광용씨는 "학우들의 무관심속에서 다음의 사업을 진행하기가 무리라는 생각을 해왔으나 선거투표 당일 학우들의 투표가 저조함으로 사퇴의견서를 썼다"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단일후보의 사퇴로 지난 22일 열린 한의대 중앙운영위에서 한의대측은

"제15대 한의대 학생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그 체계를 대항한다"고 결정했다.

후보자 재등록은 현시점에서 1월 중순에 확정될 유급문제에 따라 유급 시 수업을 다시 받기 때문에 후보자들을 등록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오는 2월이나 3월까지 연기된다.

한편 교과과정 개편은 한의학이라는 고유성에 부합되지 않은 양방학이라는 과목이 있어 이를 하향조정 한다는 기초를 내세웠으나 현재 합의단

계가 있다. 또한 특별입학, 특별편입문제는 학생과의 협의없는 상황에서 의학계열 특성이 전제되지 않았고 특히 국가고시에 있어 중국유학생 문제가 대두됐다.

"이후의 방향에 대해 한의대측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타대학과 연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입생 예비대학과 합의하지 못한 내용은 오는 10일 중앙운영위를 통해 합의된다.

의대 학생회 조용석·최성욱조 당선 교육 복지안등 교학간담회 열려

의대 학생회(회장=김대홍·본2)는 제10대 의대학생회 선거를 지난해 11월30일 의학과 2층 종합강의실에서 실시했다.

총 유권자 3백1명중 총 투표인원 2백32명으로 찬성 2백14표, 반대 14표, 무효 4표로 조용석·최성욱(본1)군이 당선됐다.

한편, 당일 의대학생회에서 개최된 교학간담회에서는 학생회측에서 제시한 사안, 즉 교육, 학교운영주체, 병원간의 참여조로 인하여 이번 특강은 꼭 필요한 2강좌만을 신설했다"라고 밝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분- 강의평가제는 현재 많은 교수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나 내년에는 우선 각 교실마다 시행하고 97년도 부터는 모든 강의에 적용시키며 문항평가는 학생·학장의 합의하에 할 것, 교수임용시의 학생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개선방안II(교수임용 결과에 대한 근거)는 학생회에 통보, 커리큘럼 개선안중 기초과학과 일부는 과외로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P-K실습 시간의 재조정에서 우선 실습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으나 현재 포항·경주병원의 경우 일과상에 그치는 외상환자가 많아 P-K실습의 실효성이 없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학생회에서는 P-K실습 시간을 줄이고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제안을 했다. 또 1년 강의시간표를 책으로 편찬하여 보강이나 휴강을 극소화하고 학생회 행사를 절감해 학사운

영을 효율적으로 운영, 96년 의대평가를 대비해 지원된 3억원의 사용내역은 해부학, 병리학, 예방의학 등의 기초학과의 연구비로 지원, 동아리방 배치, 강의실·도서관 냉·난방 시설 설치 등 학생복지 지원, 방사선 동위원소실 배치, 실험실습 동물사육소 보완, 의학정보 인수를 위한 네트워크 설치 등이며 의학연구재단설립은 현재 의뢰된 차원에서 진행중이다. 또한, 의대평가를 대비해 본과에 한해서만 담임교수제를 실시하며 6개의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그 중 학생고충위원회는 정신과교수의 학생상담을 담당하며 교과과정위원회와 학교발전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교수의 힘을 집중시키며 국시와 변화하는 의료산업에 적절히 대비해야 한다. 의대 학칙개정에는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유급 3번시 제적인 사정에는 변동없이 △학교운영주체 - 교수협의회 활성화와 기초학 연구원 제도의 개선 △병원문제 - 경주병원 중추 및 포항병원 신축이전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것이며 일산 불교종합병원 개설, 병원중추·신축에 따른 재정확보 등은 의료원 차원에서 진행중 △학생복지 - 동아리방 신설, 의학도서관과 강의실 냉·난방 시설확보 등이다.

이에 학생회측에서는 "대학평가에 대한 일시방편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비단 의대뿐만 아니라 학교발전전에 학교측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시는 졸업예정자 50명과 졸업자 3명 등 총 53명이 치르며 학교측은 국시대책위원회를 꾸려 임상정리해설집과 본4년 전용독서실을 만드는 등 국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한의학과 식당 정상화 협상

제11대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박승우·국경3)는 지난달 22일 한방병원 사무과에서 한의학과 매점-식당 정상화 협상을 가졌다.

사무과장과 입주대표 한의대 기획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7차 협상은 합의용 적용과 가격제시, 판매품목관리 등 지난 협상을 통해 제기된 협안들을 점검, 검토하였다.

이번 협상의 주요요건은 판매품목관리 부분으로 입주의 일방적인 가격인상과 상품목의 선별 등이 학복위를 거쳐 관리된다.

학복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일련의 협의를 통해 한의대 학생들도 동국대 학생으로서의 학생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음영독서실 신설

외국어교육원(원장=이석경·영어영문학과)은 음영독서실을 신설해 96학년 도부터 원효관(A303)에서 개방한다.

이번 공사는 지난해 12월 중순에 공사가 마무리됨으로써 오후 12시, 오후 20시 등 총 32석을 갖추게 되었다.

외국어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어학실력 향상을 위해 이번 공사가 실시되었으므로 무료로 개방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도서관 개관 시간변경

도서관(관장=김용택·사회복지학)은 지난 12월18일부터 오는 2월16일까지 동계방학으로 인한 개관 시간변경을 실시한다.

일반도서관, 참고도서관, 정기간행물실, 한의학·의학도서관 등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15분까지 개관하며, 일반열람실은 종전과 같으며 야간연장운영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도서관측은 방중 도서관 출입 시에는 학생증을 제출해야하며, 휴학·복학생은 일반도서관에서 특별열람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학연구소 논집발행

한국문학연구소(소장=홍기삼·국문학)는 지난12월28일 19번째 논문집을 발행했다.

이번 논문집에는 특집으로 '조지훈의 문학과 사상' 50년대 작가연구에 대한 논문이 실렸고 그의 6편의 논문이 소개됐다.

특히 '조지훈의 문학과 사상'과 '50년대 작가연구'에 대한 논문은 국문학에서 조지훈에 대해 최초로 민족학적 접근을 했다는 점과 특정시대 작가의 집중분석이라는 면에서 높이 평가받고있다.

연구소 한 관계자는 "이번 논문집 발행은 96년이 문학의 해이고 연구소 개원 20년이래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졸업 영상 앨범 미완성 논란

총 20개 학과 중 4개학과만 제작 필요성 인식 부재가 문제

제6대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박종철·영4 이하 졸업위)는 이번 해 처음 시도하는 졸업 영상앨범 제작을 실행했으나 그 결과로는 4개학과(광고, 행정, 법(아), 의대)만이 완료됐다.

지난해 3월 정기총회에서 20개학과와준비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영상앨범제작위원회에 반대 11개학과 찬성, 9개학과 찬성하는 과단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찬성한 학과도 제대로 영상제작에 참여하지 않았고 4개학과만이 앨범제작을 완료했다.

영상제작에 대해 4학년 한 학생은 "취업공부 하기도 바쁘는데 돈도 들고 귀찮고 해서요, 꼭 한다면 그렇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렇듯 학우들의 영상앨범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졸업위측은 "설문조사로 학우들의 영상앨범제작에 긍정적인 면을 보았다. 이 자료를 계기로 영상앨범제작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처음 기획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영상앨범제작 필요성의 기본적인 인식이 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나타났다.

더구나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건 4학년이라는 특수성이 주어진다. 영상앨범의 주체이면서도 취업문제로 학생들은 바쁘고, 학교도 잘 안나오다 보니 졸업위측과의 연계도 잘 안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 뒤늦은 설문조사로 학우들의 반응을 알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선거가 끝난 지금 제6대 졸업위는 졸업앨범만 남겨놓고 제7대 졸업위측에게 사업에 관한 사항들을 이월하고 있다.

제7대 졸업위(위원장=임명수·회계3)는 "이번 졸업위에서의 영상앨범제작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학우들이 원하던 적극적인 사업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상앨범은 각 대학에서도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볼때, 차기 졸업위가 학우들과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며 사업을 꾸려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인선기자)

카메라 고발... 누구 없소?



동아리 공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재 제9대 동아리연합회가 분과장실을 가동해 동아리에게 넘겨줘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제10대 동아리연합회가 지난해 12월 23일 폐쇄시킨 가동록 등 여러 방의 모습 (허민희 기자)



용평리조트 20년
1975-1995

제11회 용평 눈조각 대회

기간: '96. 1. 21~24

「용평에선 겨울이 살아 움직인다!」

매년 겨울이면 용평은 거대한 조각의 예술장으로 변한다. 젊음의 눈조각축제가 펼쳐질 순백의 설원-용평으로 오십시오. 환상의 겨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평리조트
ALL SEASONS RESORT

95년 직영매장 순이익 2천3백만원

서점 6천3백만원으로 최다이익

공동관리위원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공관위)가 직접 운영하는 전체 매장이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2천3백만원의 순이익을 냈다.

공관위 12월회가 공관위 회의실에서 지난 12월22일 열린 가운데 결과보고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본 매장은 서점으로 나타났다. 자판기, 안경점이 그뒤를 이었다. 서점은 매출계획인 5억원 목표보다 2배 이상인 10억 가량의 주가를 올려 6천3백만원의 이익을 보였다. 자판기 역시 목표액 5억원을 넘는 5억5천만원의 판매 실적을 보였으며 안경점도 2백만원의 흑자를 냈다.

반면, 손해를 본 매장은 동국관 식당, 화장품 판매점 등이다. 동국관 식당의 경우 다양한 지하식당보

다 파다한 인건비의 투입으로 1천2백만원 적자를 냈다. 그 이외에 임비용의 저조, 매출목표 미달상의 이유로 적자기록에 한축했다.

화장품 판매점은 4천3백만원의 목표보다 훨씬 못미친 2천1백만원의 실적을 올려 큰 적자를 냈었다. 이에 공관위의 한 관계자는 "매장 운영을 다르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며 화장품 운영계획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기타 보리수가 1천9백만원의 이익을 냈으나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면 다항관식당, 다락방과 같이 수지균형을 맞추었다.

한편, 임용기준의 운영에 관한 논의는 직영운영과 위탁운영을 놓고 학생측과 공관위측의 마찰로 다들 기피로 연기됐다.

사업장 명칭 당선작 발표

다항관 학생식당은 '녹다원'등

지금까지 이름없는 지번 식당, 매점, 서점의 학생들의 공모로 이름을 갖게됐다.

1백주년기념사업본부(본부장=한태식·선학)는 지난 12월26일 40여명이 제출한 공모작을 심의, 당선작을 발표했다.

올해 결정된 사업명칭은 오는 3월경 생활협동조합 건립이후부터 사용할 예정이다.

당선작을 살펴보면 식당부문에서는 △다항관 교수식당=녹다원(임선, 김희숙·교육3) △동국관 교수식당=보금자리(임선, 송인길·일반대학원 사학 석사과정) △학생문화관 식당=떡볶이(임선, 김선문·경제(야)2) △다항관 학생식당=바루(장려, 박수로·무역95졸) △동국관 학생식당=한솔(장려, 이여림·영문

1. 장려, 이상엽·법4) 등이다.

매점의 경우 △명진관 휴게실=롬바니(임선, 서재호·경영대학원 석사과정) △동국관 휴게실=그루티기(임선, 이수식·영문(야)1) △원흥관 휴게실=아리수(임선, 정창수·선1) 등이다.

그 외 해화관 휴게실 다락방과 다항관 휴게실 보리수는 이름상에 문제가 없어 사업장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또 다항관 지하서점은 책방 붓고(장려, 박수로·무역95졸)로 결정됐다.

한편, 입상자들은 입상금 10만 원 장려금 5만원 각각을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공관위 사무실을 방문해 상금을 받아가면 된다.

학생회관 내부공사 시작

5층설계안 이견... 마찰예상

본교 학생회관 내부공사가 입찰 업체선정의 난항으로 일정보다 다소 늦어진 지난해 12월26일 시작됐다.

난방공사, LAN(근거리통신망) 설치, 공간재배치 등이 이루어질 이번 학생회관 오는 2월20일 완료예정이다.

동아리 공간 배치 문제에서 5층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협의는 거의 이루어졌으나 5층에 대한 설계안은 학교측과 동아리 연합회측이 제시한 것이 서로 달라 이에 대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공사에 대해 학생과의 유연

성씨는 "5층에 협의할 것이 남았지만 합의점을 찾고 있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리 연합회의 최동현(국교3)회장은 "합의되지 않은채 학교측이 제시한 공사안 대로 실시한다면 공사에 적극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이후 공사진행에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공사에 따라 각 동아리들은 학원관 4층으로 임시 이주했고 입찰업체는 서원건사로, 입찰가는 10억원으로 알려졌다.

96년 특차모집 경쟁률 1.21대 1

한의예·경찰행정·한국어문등 치열

96년도 본교 신입생선발 특차모집 원서접수가 평균 1.21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지난 26일 모두 마감됐다.

지난해 평균경쟁률 1.6대1보다 낮은경쟁률을 보인 이번 특차전형은(관호안은 모집정원) △법고(8)=2 △한국어문학부(8)=26 △영문(10)=16 △법학(16)=21 △사회과학(24)=47 △경찰행정(8)=31 △경상학부(57)=92 △전자·전기공학부(42)=3 △건축·토목공학부

(24)=16 △공학계열(84)=12(이상 서울캠퍼스) △한의예과(16)=73 △의예과(10)=4(이상 경주캠퍼스) 등의 지원현황을 보인 가운데 불교학부, 공과대, 의예과가 미달된 반면 경주캠퍼스 한의예과가 4.56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공과대는 모집전학부가 미달현상을 보였는데 이에대해 교무과의 한 관계자는 "작년에는 일부 인기학과만 모집한데 비해 올해는 학부로 한꺼번에 모집해 그런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월19일부터 원서교부가 시작된 전기모집일정은 △원서접수=1월3일~6일 △예비소집=1월17일 △합집고사=1월18일에 실시하고 서울캠퍼스 지원자를 대상으로 논술고사 실시(단, 예제능계 17일 면접) △실기고사=1월18일~20일 △사범계학과 교직 인성 및 적성검사는 1월19~20일이며 합격자는 오는 1월27일 이전에 발표한다.

여학생부처(부처장=임돈희·사학)는 본교 1학년 재학생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산위탁교육생을 모집한다.

전산위탁교육생은 학기중, 주·야 시간을 활용해 전자계산원 2년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교과목은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C언어등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생은 특별전형하여 입학허가되며 전산원 수업료의 20%(약 20만원)를 감면받는다.

전산원의 한관계자는 "586컴퓨터에 인터넷망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수료자의 97%정도가 컴퓨터관련 기업에 취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차 임금협상 결렬

학교·노조 의견 엇갈려

지난해 12월 15일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있는 96학년도 제2차 임금협상이 학교측의 준비미흡으로 결렬됐다.

지난1차 협상당시 노조측이 제시한 △임금 15%이상 △수당정액 3만 원에 대해 학교측은 △96년도 등 록금 협상이 이루어 지지않아 실물리 임금인상을 정할수 없고, △내년 70~80여명정도 교원충원이 있을 예정이어서 예산이 부족하며, △정부에서 내년 임금을 10%이하로 하라는 협조 공문이 왔다는 등의 문제점만을 이야기해 별성과 없이 끝났다.

직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학교측은 95학년도 임금협상시 대학평가제와 학교의 변학을 위해 재정이 필요하니 조금씩 양보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대신 96학년도 임금은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며 "96학년도 임금협상은 95학년도 임금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고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현재 대부분의 직원들이 2~3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으므로 일한것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이유가 있고,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임금협상은 잘 이루어져야 할것"이라 말했다.

교수·축구부 해외훈련

본교 야구부와 축구부가 이번달 말일부터 10일간 각각 필라오, 태국에서 해외훈련을 가질 예정이다.

축구는 현재 국가대표급 선수와의 서너차례 경기도 가질 계획이다.

이에 한 관계자는 "처음있는 해외훈련이라 선수들의 기술향상과 사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서관 도난방지 시스템 설치

효율적 도서관리 가능

도서관(관장=정병조·국민윤리학)은 도서관 일반자료실과 서고에 순차적으로 도난방지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책속에 마그네틱을 부착하여 대출을 할 경우 마그네틱을 일시 제거하는 원리로, 대출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시스템을 통과할 경우 경보, 경광, 출구 잠금장치 작동된다.

2층 과제도서실과 불교학 자료실에는 이날 22일에 설치되어 2월21일까지 시범가동될 것이며 올해안으로 3층 전기강독실과 참고도서실 서고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도난방지 시스템이 설치될 경우 개인도서관 가방을 소지한 채 자료열람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이용자 감시에 소요되는 예산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다.

외국어 교육원 단축운영

통계 방학에 따라 외국어교육원(원장=김정태·영어영문학)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하면 시간각실을 오는 2월16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단축운영한다.

◆불·조·심!... 난로에서 쇼파로 옮겨붙은 불은 삼시간에 학회실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위 사진은 지난 12월18일 화재가 난 경제학과(야간강좌) 학생회실. (김희동 기자)

학·진·무·대

이유아난 이유

○...도서관에서 공부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무슨 소리이고 하니, 동국관 5층 야도의 출입문이 부실해서 열고 닫을 때마다 끼익 끼익 소리가 나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된다는 것.
기복이나 지리가 모자라 자리 찾으러 돌아다니는 학생들 때문에 산만한데 출입문마저 신경을 쓸거라 한다.
이에 열받은 한 학우 왈 "나 공부 안할래"

장하다!!

○...세계화 드디어 성공!
김영삼대통령이 열려라 부른 것만 세계화를 전지대통령들이 모범적으로 실현시켰는데 바로 비자금과 대통령구속이 타미지가 선정한 올해의 10대뉴스중에 당당히 3위를 마크한것.
이제 우리는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정치비라적 면에서도 세계일류가 되어가고 있다.
이에 본 회정무대자 함다더 "대통령이 쓰려면 나라도 삼류!"


다이어트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5공이가 단식농성 아닌 농성을 하다 병원에 실려갔다던데,
단식농성의 이유인즉 5공화국의 정통성이 전면 부인되는 현재 상황을 결코 승복할 수 없어서 5공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고.
대구나 이러한 단식농성이 동정심을 유발시키려는 여론조성으로 보여져 시민들을 분노케 하는데,
이에 본 회정무대자 함다더 "5공시절 살던 때(?) 감옥에서 빼는구나!"

누구랄 더몰어

○...더몰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캠페인이 한창인 현재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가는 무리가 있다는데,
말아보니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 파업중 부분임금이 3년만에 완전무임금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해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무노동 무임금'은 문민정부의 또 다른 노동탄압의 산물이 아닐런지,
이에 회정무대자 왈 "이시대 문민정부가 애초(?)하는 고사성어는 약육강식이 아닐지?"

우리학교 생협, 곧 출범합니다(3월2일 창립총회 개최)



생협이 말하는 이습. 이습이 말하는 생협.

「협동」이란 서로에게 좋다고 이습은 이 우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대학생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 구성원들이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 만드는 자주, 민주적 생활공동체 조직입니다.

〈사업장 명칭 공모 당선작〉
(식당 부문)
다항관 교수식당- 녹다원(김희숙·교육93)
동국관 교수식당- 보금자리(송인길·사학)
학생문화관 식당- 떡볶이(김선문·경제92)
다항관 학생식당- 바루(박수로·무역95졸)
바루밥집에서 차음
동국관 학생식당- 한솔(이여림·영문95, 이상엽·법88)
한솔과 가마솥에서 차음

(휴게실 부문)
명진관 휴게실- 롬바니(서재호·경영(석))
동국관 휴게실- 그루티기(이수식·영문(야)95)
원흥관 휴게실- 아리수(정창수·선학95)
해화관 휴게실- 다락방(현행 그대로)
다항관 휴게실- 보리수(현행 그대로)
(서점 부문)
다항관 서점- 책방 붓고(박수로·무역95졸)
붓고책방을 수경

공 고

일반 휴학원 접수일정 변경
'96학년도 제1학기 일반휴학원 접수일정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접수함.

아 래

1. 신청일자: '96.3.4(월)~3.6(수)에서 '96.1.8(월)~1.10(수)로 변경
2. 신청자격: '95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
3. 신청대상자
가. 가정형편, 질병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나. 수업일수 2/3이상('95.5.17) 이전에 군입대 예정학생
4. 신청장소: 교무처 학적과
5. 신청서류: 보호자가 연서한 일반휴학원(소정양식)
6. 유의사항
가. 일반휴학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 할 수 없음.
나. 일반휴학기간 만료후 복학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만료 제격됨.

공 고

복합·제임학 신고 접수
'96학년도 제1학기 복합 및 제임학 예정지에 대한 신고를 아래와 같이 접수함

1. 신고기간: '96.1.12(금)까지
2. 신고대상자
가. 복합대상자: '95학년도 2학기 현재 일반 및 군사 휴학중인 자로서 '96학년도 제1학기에 복합예정인 자
나. 제임학대상자: '95학년도 이전 제적생중 '96학년도 제1학기에 제입학예정인 자
3. 신고방법
가. 복합예정자: ① 학교에서 발송한 우편으로 회신
② 직접 방문신고
③ 팩스로 신고
서울캠퍼스: 02-277-1274
경주캠퍼스: 0541-770-2001
4. 제입학예정자: ① 직접 방문 신고
② 팩스로 신고(02-277-1274)
5. 신고내용: 학과, 학번, 성명, 복합 및 제임학 사항
6. 유의사항
가. '96학년도 제1학기 복합 및 제임학 예정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 절차를 필하여야 함.
나. '96학년도 제1학기 복합 및 제임학 신청자는 이후의 정해진 기간('96.2.월중)에 복합 및 제임학 원서를 제출하여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필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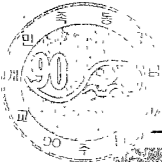
謹賀新年

등남벽지

등남갈포공업(주)
회장: 서병식

직원일동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14-3 옹기빌딩
☎ (02)548-6237



◇ 학부제 실시, 후속보완조치가 관건

학교당국의 학부제 실시 발표로 인해 교수간, 학생측등의 많은 논란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학부제 실시후의 교과과정 재편, 교수 확보등 제반 조치가 학부제 성공의 관건이다. 또한 학내 구성원 모두가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 학내 대대적 조정공사... 이제는 내실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 대비해 도서관 창고교체 후문 용벽, 인공폭포, 수목터널등 학내 대대적인 조정공사를 실시했다. 반면 기원학사와 수영장, 학림관등 건물부실도 드러났다. 외관뿐 아닌 강의와 연구를 위한 기자재 확보등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해방50주년 통일원년... 통일운동의 대중화

올해는 해방50주년으로 통일원년을 실현시키려는 각종의 통일운동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다. 대중제 기간 실시한 통일방안대토론회의 성황은 통일의 열기를 실감케 했고 8·15민족공동행사는 통일운동의 대중화라는 성과를 남겼다. 앞으로 국가보안법철폐등 지속적인 통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 천만노동자의 희망 민주노총 출범

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계승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1월 출범했다. 산업별 노조 지향으로 더욱 확고한 노조의 단결을 추진하며 사회개혁과 통일조국 건설, 노조 정치 세력화에 힘쓸 것이다. 정부의 간부구속, 근로자 파견법등의 노동악법제정에 맞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 삼중봉괴... 총체적 부실·부패 드러나

대구가스폭발사고에 이은 삼중백화점 붕괴로 온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극에 달했다. 사망 5백명, 부상 9백여명을 기록한 이 사태는 우리사회의 총체적 부패를 극명히 보여준다. 이준회장은 10년을 선고받았으나, 아직도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피해자 가족들은 담당하기만 하다.

◇ 지방자치시대 개막... 여당참패

6·27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실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김영삼정권의 중간평가이기도 했던 이번 선거는 집권여당의 참패로 끝나고 서울시장에 야당의 조순후보가 당선되었다.

◇ 경주고속도로 도심통과 반대

민족의 자존심이며 도시자세가 문화재인 경주의 도심으로 고속전철이 가로지르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아찔하다. 오로지 효율성과 성장주의적 발상으로 극도개발을 꾀하는 것은 실감하다. 이에 전통교계와 문화계에서 들고 일어나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 전두환·노태우 두명의 전직대통령 구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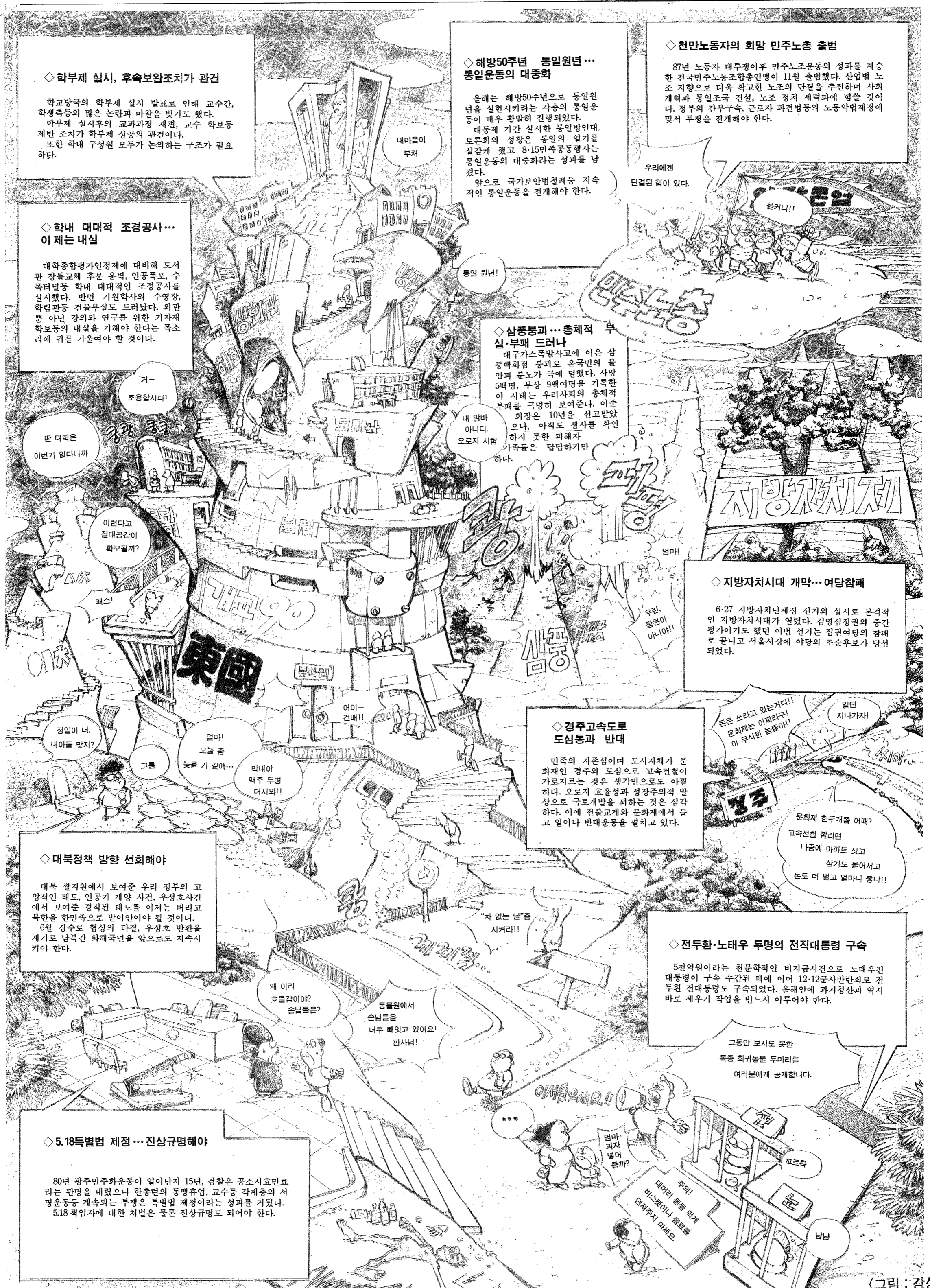
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자금사건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데 이어 12·12군사반란죄로 전두환 전대통령도 구속되었다. 올해안에 과거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 대북정책 방향 선회해야

대북 발전원에서 보여준 우리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 인공기 계약 사건, 우성호사건에서 보여준 경직된 태도를 이제는 버리고 북한을 한민족으로 받아안아야 될 것이다. 6월 경수로 협상의 타결, 우성호 반환을 계기로 남북간 화해국면을 앞으로도 지속시켜야 한다.

◇ 5.18특별법 제정... 진상규명해야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지 15년, 검찰은 공소시효만료라는 판명을 내렸으나 한총련의 동맹휴업, 교수등 각계층의 서명운동등 계속되는 투쟁은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5.18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진상규명도 되어야 한다.



(그림: 강성수)